

13일 Market Index			
코스피	4170.63	코스닥	918.37
	(+20.24)		(+11.86)
금리 (한국예 9년)	2.910	환율 (원·달러)	1467.10
	(-0.013)		(+1.40)

고환율의 역습… 산업계 원가압박·투자부담 ‘비상’

원·달러 환율 1470원 돌파
북미 투자 외화부담 눈덩이
중소기업, 원가 부담 ‘한계’
물가관리 겹쳐 식품업 긴장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 특성상 환율 급등은 즉각적인 원가 압박으로 이어지고, 북미 투자 확대에 나선 기업들의 해외 사업 비용도 커지고 있다. 대기업은 글로벌 생산망을 통해 일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중소 협력업체들은 원자재 조달 비용을 납품가에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워 직격탄을 맞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이 북미 진출을 가속화하면서, 공격적인 해외 투자에 따른 외화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환율 상승은 단기적으로 수출 기업의 매출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기업에겐 오히려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 삼성전자·현대차 등 대기업은 해외 생산 거점을 활용해 대응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사정이 다르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기업은 환율이 10% 오를 때 영업이익률이 0.29%포인트 낮아지는 반면, 중소기업은 환율이 단 1%만 올라가도 영업이익률이 0.36%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취약성의 차이가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충북 진천의 한 부품업체 관계자는 “수출 기업이라도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은 무시하기 어렵



“고생했어 우리딸”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대구 수성구 해곡여자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치고 나온 수험생을 어머니가 안아주고 있다. /뉴스IS

다”며 “특히 내수 기반 영세업체는 환율 충격을 온몸으로 맞는다”고 말했다.

해외투자 확대도 기업들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북미를 비롯한 해외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투자비 증가로 바로 이어진다”며 “변동 폭이 커질수록 사업 계획을 짜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실제 현대차그룹과 포스코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전기로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양사는 올해 4월 약 8조2000억원(58억달러) 규모의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2029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 수준의 환율이 지속된다면 투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식품업체도 긴장감이 높다. 곡물·코코아·대두 등 핵심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 가

운데, 정부의 물가 관리 기조까지 겹쳐 가격 인상 카드가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올해 초 국제 곡물 가격이 다소 안정됐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환율 상승이 이를 상쇄했다. 코코아 가격은 지난해의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서아프리카 생산 차질로 공급이 줄어든 데다 달러 강세가 수입 단가를 밀어올렸기 때문이다. 원당과 유지류 등 주요 식품 원료도 동반 상승세다.

식품기업들은 재고 확보, 선지급 계약, 수입 시기 조절 등으로 환율 리스크를 완화하려 하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반기까지 필요한 원재료는 확보했지만 내년 상반기 이후는 불확실하다”며 “고환율이 길어지면 원가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가격 인상마저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의 물가 관리 기

조 속에 가격 인상은 사실상 막혀 있고, 제품 용량을 줄여 대응하는 방식도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슈링크플레이션(내용량 축소형 인상)’ 표시제 도입 논의는 업계의 또 다른 부담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상반기 중 원재료·가공식품은 물론 치킨·피자 등 외식 메뉴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율·물가·규제라는 ‘삼중고’ 속에서 식품업계는 사실상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기업들은 생산 효율화, 수출 확대, 프리미엄 제품 중심 포트폴리오 재편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내년을 회복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환율의 파고를 견뎌내는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양성운·신원선 기자

ysw@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산업의 판도 뒤바꿀 핵심동력 ‘피지컬 AI’ 새 패러다임 시대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가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이란 주제로 오는 11월 19일(수요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은 다시 한번 획기적인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AI는 소프트웨어(SW)란 한계를 깨고 물리적 현실과 결합하는 ‘피지컬(Physical) AI’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도 피지컬 AI를 ‘AI 모델의 완성형’이라고 말할 정도로 피지컬AI는 조만간 모든 산업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단순한 SW 형태의 AI를 넘어, 센서를 통해 주위 현실 세계를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물리적 장치를 움직이며 경험을 학습하는 ‘몸을 가진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AI가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언어 영역에 한정됐다면, 피지컬 AI는 AI가 스스로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환경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에서는 피지컬 AI의 이해에서부터 산업별 혁신 사례, 휴머노이드와 로봇의 진화 등 피지컬 AI의 등장으로 인한 산업 지형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
- 일 시 : 2025년 11월 19일 (수) 오후 2~5시
- 장 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기조강연 : 유태준 한국피지컬협회장(마음AI 대표이사)
강 연 :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전무)
강 연 :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이사
강 연 : 양수열 클라우드웍스 CTO
강 연 : 김하늘 에임인텔리전스 이사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참가신청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문 의 :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metro[®]

10월 가계대출 5조 꺾충… 규제 전 선제수요 ↑

주담대 중심 뭉치돈 이동
은행 이어 2금융도 증가

지난 10월에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5일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으로 부동산 거래는 줄었지만, 이전에 증가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진 영향이다. 대

출규제를 앞두고 미리 대출 받은 수요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 달(1조1000억원) 증가 규모와 비교하면 4배 가량 급증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

계대출 잔액은 1173조7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3조5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자체 대출 1조1000억원과 디딤돌 버팀돌 등 정책성 대출이 1조원 증가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같은 기간 1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달 5000억원 감소한 것에

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에는 중도금 대출이 미리 결정돼 있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11~12월까지는 10·15주택시장안정화방안 발표이전 주택거래량 증가분이 주택담보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여전사 등을 포함한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8000억원 감소한 것에서 1조3000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험사(-3000억원→+1000억원)와 여전사(-1조1000억원→+2000억원)는 증가세로 돌아섰고, 상호금융권(+1조원 →+1조1000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저축은행(-5000억원→-2000억원)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신진장 금융위 사무처장은

“2금융권도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자금을 유용한 경우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은행권은 7월부터 10월까지 사업자 용도의 유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례가 45건 발생했다.

신사무처장은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

메트로 한줄뉴스



- ▲국힘, ‘공소 취소 제도 폐지법’ 발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차단
- ▲민주당, 세운4구역 재개발 뚫어 “종묘 오세훈 개인의 것 아냐”
/사진 뉴스IS

- ▲국방위, 군인 당직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2975억 증액 예산안 의결
- ▲정부 21일 দিৱস সাধাৱণ সাধাৱণ চহৰীয়া…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모

- ▲감사원, 실업급여 경제위기시 8개월만에 고갈… 적립 방식 손질해야
- ▲여당, 오는 12월 선출직 평가 착수… 현역 하위 20% 들개 봐 전전긍긍

LG, 벤츠와 ‘전장동맹 강화’ 논의… 계열사 CEO 총출동

올라 칼레니우스 벤츠 회장 방한
“LG는 확고한 장기적 파트너”

차량용 인포테인먼트·ADAS 등
SDV 전환 핵심솔루션 공동개발

2년 만에 방한한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이 LG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남을 갖고 협력을 강화한다.

칼레니우스 회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를 방문해 LG그룹 전장 사업 핵심 CEO들과 만나 ‘원 LG’ 솔루션 협업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칼레니우스 회장은 이날 회동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LG는 확고한 장기적 파트너”라며 “LG와 훌륭한 기술 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주완 LG전자 대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정철동 LG디스플레이 대표, 문혁수 LG이노텍 대표 등 자동차 부품 관련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정철동 CEO는 칼레니우스 회장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이냐는 질문



조주완 LG전자 CEO와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 등이 13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만나 LG의 자동차 부품 사업 역량을 결집한 ‘원(One) LG’ 솔루션 협업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메르세데스-벤츠 R&D 코리아 컬샷 카르탈 센터장, 메르세데스-벤츠 이다 볼프 기업본부 총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마티아스 바이틀 CEO, 메르세데스-벤츠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 LG전자 조주완 CEO, LG디스플레이 정철동 CEO,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CEO, LG이노텍 문혁수 CEO. /LG전자

에 “열심히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양측 경영진은 ‘전기차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통한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등 메르세데스-벤츠의 비전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LG의 자동차 부품 부문 4개사는 내연기관차, 전기차,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를 아우르는 차별화된 솔루션

을 바탕으로 메르세데스-벤츠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다.

LG전자와 메르세데스-벤츠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등 SDV 전환의 핵심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대시보드 전체를 곡면 형태의 파노라믹 스크린으로 구현해 점점 더 커지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트렌드를 반영한 올레드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

템을 공동 개발해 프리미엄 전기차인 EQS 모델에 탑재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020년부터 메르세데스-벤츠에 차량용 P(플라스틱)-OLED를 앞세워 차별적 고객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유연한 플라스틱 기판을 기반으로 뛰어난 화질을 유지하는 동시에 곡면 디자인이 가능한 P-OLED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BUX 하이퍼스크

린’에도 적용돼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메르세데스-벤츠와 전기차 배터리 관련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LG이노텍은 차량용 카메라 모듈, 라이더(LiDAR), 레이더(Radar) 등 자율주행센싱 분야의 협업을 검토 중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올라 칼레니우스 CEO는 “메르세데스-벤츠는 전략적인 공동의 파트너십이 차세대 차량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LG와 함께 메르세데스-벤츠는 혁신, 품질,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며, 양사의 강점을 결합함으로써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주완 LG전자 CEO는 “사용자 경험 중심의 가치 제안, 통합 SDV 솔루션 포트폴리오,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된 기술력과 신뢰도 등 전장 사업 핵심 경쟁력을 바탕으로 메르세데스-벤츠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차현정 기자 ysw@metroseoul.co.kr

시장규모 104억弗…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 속도전

(2035년 예상)

흑연 리스크 ‘실리콘 음극재’ 대안
대주전자·포스코퓨처엠·HS효성 등
국내 기업들, 글로벌 기업과 각축전

보호무역 강화와 흑연 공급의 중국 편중 완화, 전기차 시장 확대 흐름 속에서 실리콘 복합 음극재가 차세대 대안으로 부상하며 글로벌 투자와 상용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 잇따라 진입하며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시장조사업체 퓨처마켓인사이에 따르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은 올해 52억 달러에서 오는 2035년 104억 달러로 두 배 증가할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CAGR)은 7.1%에 달한다. 이는 기존 음극재인 흑연의 이론용량(372mAh/g)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에너지 밀도 개선이 어려워진 데다, 전 세계 흑연의 약 95%를 공급하는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로 공급 리스크가 현실화된 영향이 크다. 유럽 역시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공급 다변화와 지속가능



포스코퓨처엠 포항 음극재 공장. /포스코퓨처엠

성 기준을 강화하면서 실리콘 음극재 수요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의 용량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실리콘(Si) 기반 음극소재로, 높은 에너지 밀도와 우수한 전기화학 특성이 강점이다. 다만 가격이 비싸고 충·방전 과정에서 부피가 300~400% 팽창해 수명 문제가 발생하면서 현재는 일부 럭셔리 전기차 중심으로만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리콘 단독 구성이 어려워 실제프리미

엄 차량에서도 실리콘 함량은 10% 이하에 머문다. 이에 따라 실리콘-탄소 하이브리드 구조(Si-C 복합 구조, SiC)나 SiOx(산화실리콘) 기술을 적용해 팽창을 제어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실리콘은 리튬 저장 용량이 탄소계 대비 약 7배 높아 고속충전 및 주행거리 확장 측면에서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이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대주전자 재료는 국내 최초로 실리콘 음극재 양산에 성공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에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소재는 포르쉐 타이칸에 적용된 바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해 4월 데모 플랜트를 가동하고 내년 연산 1000톤, 오는 2030년 1만톤 체계 구축을 목표로 SiC 계열 제품의 상용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벨기에 유미코아와 합작해 실리콘-탄소 복합 음극재 사업에 진출했으며, 유미코아 자회사

EMM 지분 80% 인수를 통해 경영권 확보를 추진 중이다.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주요 셀 기업들도 자체 연구소를 중심으로 실리콘 음극재를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실라(Sila)·이노빅스(Enovix)·그룹14(Group14)·에네베이트(Enegate) 등이 고 함량 실리콘과 구조 설계 혁신을 앞세워 시장을 이끄는 대표 주자로 꼽힌다.

박기수 한국폴리텍대 이차전지시스템과 교수는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의 완전 대체재가 아닌 고성능용 보완재”라며 “현재 실리콘 음극재는 프리미엄 전기차 위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완전 대체는 어렵지만 향후 10~2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조치로 공급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요동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나라살림 적자 100조 역대 두번째로 많아

기재부, 통합재정수지 63.5조 적자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로, 세(稅)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으나 소비쿠폰 지급으로 정부 지출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41조4000억 원 증가한 480조7000억 원, 총지출은 51조9000억 원 증가한 54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5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9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108조4000억 원) 이후 역대 2번째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91조5000억 원)과 비교해 10조9000억 원가량 적자가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파운드리 첨단화… 중전기업, 8인치 생산 ‘틈새기회’

DB하이텍, 상우캠퍼스 클린룸 확장
8인치 생산능력 월 19만장으로 확대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가 첨단 공정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200mm(8인치) 생산라인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산업의 무게중심이 5nm 이하 첨단 공정과 HBM 등 고성능 반도체로 이동하면서 성숙공정 기반의 생산 생태계에도 중장기 재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파운드리 기업들은 올해 들어 8인치 생산 비중을 축소하며 12인치 기반 첨단 노드 투자를 가속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 변화는 국내 중견 파운드리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와 TSMC가 8인치 생산을 조정하고 있음에도 성숙공정 기반 수요는 비교적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대형 팹이 첨단 공정에 리

소스를 집중하면서 200mm 기반 아날로그·전력반도체 물량에서 공백을 보이는 구간이 생기자 일부 스페셜티 파운드리가 해당 수요를 흡수할 여지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DB하이텍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충북 음성 상우캠퍼스의 클린룸 확장을 추진해 월 15만4000장에서 19만장 수준으로 8인치 웨이퍼 생산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약 23% 규모의 증설을 바탕으로 BCD 공정과 아날로그 제품

군 중심의 포트폴리오 강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트렌드포스는 글로벌 대형 팹의 전략 전환이 성숙공정 분야에서 국내 중견사의 입지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리스크 요인도 적지 않다. 성숙 공정 장비는 중·리퍼브 장비 의존도가 높아 설비 확보 난이도가 높고 부품 단종에 따른 유지보수 부담이 크다. 여기에 중국이 대규모 8인치 팹 증설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수급 변동성과 가격 경쟁에서 또 다른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정희준 기자 nauta@

>> 1면 ‘10월 가계대출 5조…’서 계속

금감원, 2금융권 점검 위반 차주 ‘대출회수’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 현장점검을 이번 달 내로 마무리 하고,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 등 관련 조치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회 차원에서 지난 7월까지 취급된 새마을금고 사업자 대출 1897건을 자체 점검해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적발하고, 8월 이후 취급된 대출에 대해 규제 우회 여부를 철저히 점검 조치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원화약세 지속·해외투자 증가… 1400원대 ‘뉴노멀’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시장에는 비상이 걸렸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 가며 순식간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까지 뛴 것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와의 협상에 나섰고, 결국 10월 3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스와프를 성사시켰다. 기획재정부, 한은은 물론이고 민간에서까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물밑에서 힘을 보탠 결과였다. 이 같은 각종 조치에 힘입어 환율은 몇 차례 고비를 넘기고 겨우 안정을 되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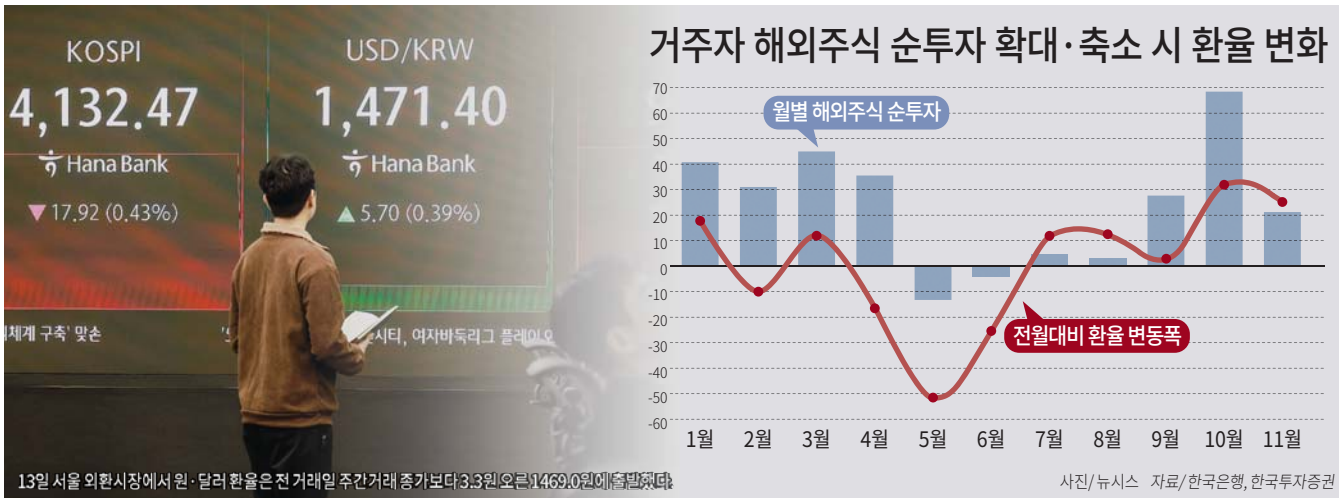
한동안 잊고 있던 환율 1500원의 공포가 다시 찾아왔다. 당국은 시장 안정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환율이 과도하게 움직일 경우 개입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한은의 외환스와프 한도도 늘렸다.

올해 평균 원·달러 환율 1414.8원
관세협상 등 글로벌 불확실성 영향
일각선 韓 경제 구조적 취약성 지적

하지만 추락하는 원화 가치를 방어하기에는 모자라보인다. 고환율은 당장 우리 삶과 경제를 조여오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만큼 늘어난 수입 결제대금을 감당해야 한다. 대기업도 외화 부채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 고환율은 한동안 ‘짚지 않던 개(The Dog That Didn’t Bark·물개)’를 다시 깨울 수 있다. 이는 서민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 원·달러 환율 천장 뚫을까

이 총재는 원화 약세의 주요 원인으로 미국 인공지능(AI) 주식의 변동성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 간 무역협상, 일본 엔화 약세 등을 꼽았다. 그는 “최근 한국 외환시장이 대내외 불확실성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1400원대 환율이 한국 경제의 ‘뉴노멀(기준선)’이 될 위기에 놓여있어서다. 13일 기준으로 올해 들어 평균 달러당 원화값은 주간 거래 증가 기준 1415.1원이다. 지난해 연평균 달러당 원화값(1364.4원)과 비교하면 50원 넘게 급락했다.

서학개미(해외주식투자자) 해외투자 증가세는 원·달러 환율 하단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힌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내국인 해외증권투자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시장에는 환율 상승압력에 대한 기대가 자리잡고 있다”며 “이때 수출 업체들은 단기 환율 고점에서 달러를 매도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달러를 보유하려는 유인이 확대된다”고 했다.

올해 들어 외국인 국내증권투자보다 우리가 나가는 게 거의 4배 수준이다. 올해 1~8월 거주자 해외증권투자액은 886억 5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외국인 국내증권투자(205억 3000만 달러)의 약 4.3배였다.

우리만의 얘기도 아니다. 아시아 주요국들의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달러화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글로벌 경제 불안으로 인한 위험자산 회피 현상과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양상이다.

일본 외환 당국은 엔화 환율이 달러당 155엔 접근하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가타야마 사츠키 일본 재무상은 이날 의회 질의응답에서 “최근 환율이 한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엔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과도하고 무질서한 환율 움직임을 발생하지 않도록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대립은 위안화 약세를 부추긴다. 특히 중국 화폐에 대한 신뢰도 약하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고속성장을 이뤄내며 세계 경제 2위로 올라섰다. 이러한 과실은 기술발전이나 인프라 확대도 있지만, ‘빚’(가계, 기업, 정부)만든 것이다.

◆ ‘3고 위기’ 재발 우려에 韓 경제 비상등

시장에서는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은 심리적인 영향과 달러 수급 요인이 있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원화가치가 달러는 물론 유로화·위안화·스위스프랑 등 여타 주요 통화에 비해서도 약세를 보인다는 점 때문이다.

끝없이 치솟는 환율은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고환율은 물가 상승을 일으키고 이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악화시킨다. 가뜰이나 내수

침체와 성장을 저하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에 ‘3고 위기’가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기업들의 경영난과 체감 경기 악화의 요인이 된다.

이 총재는 “(경기 회복 속도가 잠재성장 수준에 못 미치는) ‘마이너스 산출갭’을 고려할 때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게 한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리 인하와 폭 그리고 방향 전환 가능성은 앞으로 발표될 새로운 지표에 달려있다고 선을 그었다.

고환율 장기화시 경제전반 악영향
기재부·한은 등 시장안정 ‘구슬땀’
“환율 과도하게 움직일 경우 개입”

만일 환율이 1500원을 훌쩍 넘어설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자극할 수 있다.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했다. 1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진작 카드를 쓰기 어려워진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소비 위축, 기업 투자 감소가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고환율 낙수효과도 예전같지 않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 수출기업의 영업이익은 평균 0.5~1% 늘어난다. 하지만 수

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1~1.5% 줄어든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환율이 오르면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엔 해외 생산 비중이 증가하고 환해지(환 변동 위험 회피) 달러화 결제가 늘어나면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정부는 환율이 널 뛴 때마다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쏠림 가능성 등에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환율 방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환율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11월 기준 외환보유액은 4200억달러다. 국제결제은행(BIS)은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을 9200억달러로 권고한다. 외환시장 한 관계자는 “외환보유액이 고갈되면 국내에서 달러 유출이 빨라질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일 등과의 다자간 통화 협력 네트워크 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미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은 연 200억달러 한도로 총 2000억달러를 미국에 현금 투자해야 한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제한 통화스와프라는 안전장치가 있어 대미 투자액 5500억달러를 감당할 여력이 있지만, 한국은 안정장치가 약하다. 그나마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70조 원 규모의 한중 통화 스와프를 연장한 것이 전부다. 미국이나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2008년, 2020년에 모두 종료된 상태다.

환율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체질을 만드는 것도 과제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 등 전략산업의 경쟁력은 더 높이고,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가 산업 전반에 대한 체질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급격한 추가 상승 제한적… 현 상황, 투자자에 호재 될 수도”

전문가들 1480원대 조정국면 전망
“연말 1430~1440원대 등락 가능성”

원·달러 환율이 1500선에 바짝 다가섰지만, 전문가들은 원화 약세·달러 강세는 흐름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일각에선 오히려 최근의 환율 흐름이 투자자들에게 있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단 제언도 나온다.

13일 한국투자증권은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에 이를 경우 환 헤지나 당국의 미세조정 가능성이 있어 급격한 환율 추가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증권사 문다운 연구원은 “이런 환율의 움직임은 3분기 한국 GDP(국내총생산) 서프라이즈, 미국과의 금리 차이 축소, 반도체 수출 호조 등 펀더멘털과는 괴리가 벌어진 상황”이라며 “기대와 수급이 만들어낸 쏠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렇게 수급이 쏠려서 환율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보유중인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한 번 레벨을 높인 이상 다음 유의미한 상단은 개입 당시 진입했던 전고점 1480원”이라며 “일부는 1500원까지 상승을 예상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추가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1480원대에서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나 당국의 미세조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급격

한 환율 추가 상승은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상현 iM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실제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달러 강세가 주춤하며 환율에는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원화적 통화기조가 확인될 경우 원·달러 환율은 일부 조정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1400원선을 ‘뉴노멀(기준선)’로 보는 게 중론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ING는 보고서를 통해 “순대와자산 증가는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며 최근 합의된 매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역시 달러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여 환율이 1400원대에서 고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도 “당초 연말 환율을 1300원 후반대로 예상했지만, 최근 흐름을 감안하면 많이 내려가도 1400원 초반대 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대략 1400원 초반, 10~30원 사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리인하로 원화 강세 요인이 생기더라도 대규모 해외투자 등 수급 요인이 이를 상쇄할 수 있다”며 “연말에도 환율이 1450원보다 약간 낮은 1430~1440원대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이 1500선을 뚫을 수 있

다는 관측도 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상당 기간 고환율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며 “오는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환율 흐름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 인하시기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1500원선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예상대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경상수지가 꾸준히 흑자를 유지한다면 환율 상승세를 일정 부분 제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가 둔화 조짐을 보이자,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 ADP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최근 4주간 민간부문 일자리는 1만1250개 감소했다. 이는 2주 전(1만250개 감소)보다 감소 폭이 확대된 것으로, 고용 부진 우려를 키웠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전일 63.6%에서 67.4%로 높아졌다.

/신하은 기자

1.1조 투입해 풍력·태양광 확충... 신재생 중심 전력체계 구축

K-퍼블릭 탐방

KOMIPO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이 탄소중립 시대의 전력 공급업 모델을 새로 짠다. 회사의 '비전 2040 경영전략'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5년 30%, 2040년 40%까지 끌어올린다. 풍력·태양광 중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 'K-그린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선다는 목표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



강원 평창 대관령풍력.

/중부발전

도 조절 알고리즘을 적용해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고 시뮬레이션 기반 운영 시나리오도 마련했다. 회사 관계자는 "전남 농업기술원에 100kW 규모 실증단지를 구축해 성과를 검증 중이며 단계적 연구와 주민 참여형 모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규모 사업화로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최근 가지를 만난 자리에서 "중부발전이 국가 전력의 7%를 담당하는 만큼, 에너지 전환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사업을 국내외에서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13일 중부발전에 따르면,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현재(2024년 기준 1109MW)의 4배인 4532MW로 확대하고, 총 1조1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1860만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 이행 실적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전 3530' 로드맵에 따르면 화력발전 비중은 2024년 4만985GWh에서 2035년 2만7916GWh로 32% 줄어드는 반면, 신재생발전량은 같은 기간 2630GWh에서 1만4180GWh로 5.4배 늘어난다. 이 기간 해상풍력 설비는 160.1MW에서 2689.1MW로 2.5GW가 증가하고, 태양광은 444.7MW에서 1136.8MW로 0.7GW 늘린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화력 의존도를 줄이고, 해상풍력·영농태양광 등 신사업 모델을 본격화해 '그린 전환'을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중부발전의 대표 사업인 '제주 한림해상풍력(100MW, 총사업비 6303억 원)'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이정표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준공된 이 사업은 주기기

국산화율 82%를 달성했으며,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국내 첫 해상풍력 전용선 '현대프론티어호'를 투입해 시공 기술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

**신재생 설비 4배 확대 추진
화력발전량 32% 감축 계획
해상풍력 2.5GW 증설 로드맵
태양광 1136MW까지 확대**

또 발전사 최초로 해상풍력 O&M(운영·정비)을 직접 수행하며 전문 인력 중심의 건설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주민 참여형 수익공유 모델을 도입해 지역사회와 상생 구조를 완성했고, 연간 약 98만REC를 확보해 탄소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 염수봉 일대에서는 15.6MW 규모의 육상풍력 발전소가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사업비 559억 원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주민 수용성이 성공의 핵심이었다.

중부발전은 송전선 경로·보상 문제를 지역사회와 협의하며 갈등을 최소화했

고, 시 소유 토지를 활용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도로포장 시기 조정과 지자체 운송 일정 최적화로 공기를 1개월 단축시키는 성과도 냈다. 무엇보다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참여형 모델'을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업계에서는 "탄소중립과 지역 상생을 동시에 구현한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국내 최초로 시도된 평창 대관령 풍력 리파워링(재건설) 사업도 눈길을 끈다.

중부발전은 기존 2MW급 설비를 4.3MW급으로 교체해 용량을 30MW에서 90.3MW로 늘렸고, 최종적으로는 158.3MW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리파워링 후 설비 이용률은 7% 개선됐고, 연간 발전량은 401GWh, 매출은 677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RE100(기업 재생에너지 전환) 제도 참여를 위한 PPA(전력구매계약)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RPS 수익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은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을 낮추는 '윈윈 모델'을 만들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SPC사업자와 협력해 RPS 수익과 PPA 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해 사업자는 연간 약 430억 원의 매출을 확보하고, 중부발전은 안정적인 RPS 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RE100 참여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중부발전의 장기적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발전은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으로 에너지 자립형 단지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울산 지역에서는 150MW 규모의 '햇빛 산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입주기업 지분을 활용한 발전사업을 확산하고 있다. 대출 금리 우대, 임대차 협약, 발전수익 공유 등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농지법 개정(타용도 일시 사용기간 확대)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신사업 창출을 추진한다. 국내 최초로 180도 회전 가변 수직형 태양광을 도입해 작물 생육과 발전 효율을 동시에 높이고 있으며, IoT 기반 생육환경 모니터링과 최적 운영 기술을 개발 중이다. 또 태양 위치 추적과 패널 각

**리파워링으로 효율 개선 성과
RPS·PPA 기반 수익체계 구축
지역참여형 상생모델 등 추진
해외 태양광 프로젝트 확대**

그러면서 "새정부의 기조에 맞춰 2035년까지 신재생 비중을 3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다"며 "해상풍력, VPP(가상발전소), 장주기 ESS 등 신사업 모델 발굴을 통해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부발전은 최근 전남 신안군 우이도 인근 해상에 390MW급 풍력단지 조성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총사업비 3.2조원)에 20% 수준의 지분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인도네시아 시보르와 수력, 미국 루시 태양광, 중동 지역 태양광 프로젝트 등 해외사업 포트폴리오를 잇달아 확장 중이다.

이 사장은 "올해만 3건의 신규 사업을 수주했고, 아시아와 유럽, 미주에 이어 중동까지 진출 영역을 넓혔다"며 "신재생 사업의 글로벌 트랙레코드를 확보해 발전공기업의 새 성장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한민국 대통령 단체표창·정부 포상·대통령 표창 수상
영국 여왕 자원봉사상 수상(영국 하나님의 교회)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 수상(금상 83회, 라이프타임상)

우리 동네에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② 따뜻한 가족편

한국의 교회 봉사활동 보기

아이들이 밝고 배려 깊은 인재로 자라나게 돕고
가정에 화목을, 세대 간 공감을 키워가며
생명이 위급한 이웃을 위해 기꺼이 팔을 걷는
하나님의 교회는 당신 곁을 지키는 '따뜻한 가족'입니다.

175개국 7800여 지역 이웃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온 인류를 가족으로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지구촌 곳곳에 희망과 평화의 빛을 밝혀가겠습니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교육지원, 건강보건증진, 지역사회 안전지원 등 6대 분야에 걸쳐 국내외의 600만여 시민과 함께 4만4000여 회봉사를 펼쳤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성경 가르침에 따라 지역사회와 지구촌의 행복 증진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늘 모색하며, 평화롭고 포용적인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 지역사회 혈액수급지원 > 가족에 주재 세미나 및 전시회 > 청소년 호·감사캠페인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LEEUM

In partnership with
* KB Financial Group

세상을 바꾸는 금융

리움미술관 현대미술 소장품전 전시 후원
사진: 이한구, 사진 제공: 리움미술관

KB ART GALLERY

Kiaf SEOUL | * KB금융그룹

문화가 꽃 피는 나라
희망이 자라는 대한민국

K-팝부터 K-무비까지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문화강국, 대한민국

그 주인공인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더 쉽게 접하고
K-컬처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Kiaf SEOUL, 리움미술관 후원
전국 45개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까지
국민의 금융 KB가 힘이 되겠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iaf SEOUL 2024, 2025 리드파트너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

신청 경로 KB스타뱅킹 ▶ 국민지갑 ▶ 편의 ▶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전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KB금융그룹이 무료 전시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 바로 가기



* KB금융그룹

“6대 핵심분야 구조개혁 통해 잠재 성장률 반등시켜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제15차 수석 보좌관 회의

李 대통령 “지금 이 구조개혁 적기 내년 韓 대전환 출발점 되도록 준비 갈등 피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돼” 겨울철 위험사업장 안전점검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6대 분야에 대한 과감한 구조 개혁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잠재 성장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데 대해 재차 관계부처와 기업을 향해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지는 지금이 구조 개혁의 적기로 판단한다”면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당연한 최대 과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정부가 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필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 성장률을 반드시 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가 방치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가 없다”며 “구

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면서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의 견이 다른 건 너무 당연하고, 입장이다른 것도 당연하다”며 “다르고 갈등 생긴다고 해서 피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갈등이 대립으로 격화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닥뜨려서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 입장을 인정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조정해 가면서 우리 사회의 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이 전태일 열사 55주기다. (전태일 열사는) 반세기 전 온몸으로 부당한 노동현실을 고발하면서 산화해왔다”며 “그런데 우리의 노동현실이 가아 될 길이 아직도 멀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울산화력 붕괴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어 “제가 매일 받아보는 일보에 의

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추락사고, 또 폐쇄 공간의 질식 사고가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먹고 살자고 갔던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더이상 반복되서는 안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뀌어 된다”며 “정부는 안전 중심의 현장 관리 체계 구축에 힘을 쓰고, 기업들도 이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줄여야 될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당연히 늘려가야 될 투자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들이 겨울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도 서두르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사노위가 지금 이제 겨우 구성되고 있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인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 나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금융·보험사 교육세 2배 인상… 소비자에 비용전가 우려

2025 세제개편안

수입금액 1조 초과 시 교육세 1% 업계 성장 따른 응능부담 필요성

대한상의 “年 1.3조 추가 세 부담” 업계 “실제 손익으로 기준 삼아야”

정부가 2025 세제개편안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 표준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교육세법을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보험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과 동시에 세율 인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초대형 금융사 한정해 세율 인상”

금융·보험업은 1981년 세제 도입 이후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왔다. 정부는 ‘2025 세제개편안’에서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1조원 이하분엔 0.5%의 교육세를 그대로 징수하고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0.5%포인트 올린 1%의 교육세를 받기로 했다.

정부는 1981년 약 1조8000억원이던

〈교육세의 세원별 징수액 현황: 2019 ~ 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내분	금융 및 보험업자 수익금액	12,768	11,382	11,752	12,527	17,504
	개별소비세	4,548	4,403	4,349	4,044	4,501
	주세	8,437	7,333	6,083	8,649	8,218
	교통·에너지·환경세	21,898	20,401	24,964	16,692	16,272
수입분		3,448	3,409	3,882	4,523	5,01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금융·보험업의 규모가 2023년 약 138조 5000억원으로 75배 증가해 양적·질적 성장을 거뒀고, 이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금융·보험업의 담세력에 맞는 과세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2023년 기준 수익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로 업자는 59개로 전체 (4764)개의 1.2% 수준이고, 이들이 납부한 세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체 1조 5000억원의 81.8% 수준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밝혔다. 수익 금액 1조원 초과 금융·보험업자 중 은행은 18개, 보험은 23개, 증권·카드 등 18개 은행과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는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7년 1조 5280억원 등 2027~2030년까지 총 6조 5666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태호 기획재정부위원회 여당 간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인력, 특히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하는데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 반발 “금융사 부담 지나치게 늘려”

추가 납세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은 금융·보험업계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은행연합회, 손해·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

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기획재정부에 교육세 과세표준 신설 및 세율 인상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본격적인 세제개편안 심사를 앞두고 지난 8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지나치게 늘리거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교육세는 이름과 달리 금융회사가 교육시설 확충의 혜택을 직접 누리는 것도 아닌데 기업에 부담만 지는 세금이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법 개정 시 60여 금융회사가 연간 1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게 돼 재무건전성 악화와 금리·보험료 상승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금융권 수익이 늘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서민금융 등에 의한 이자수익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실제 손익을 따져 남은 이익만 세금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바람직하

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세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성 ▲고등·평생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재정수요 확대 추세를 고려해 세제 개편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늘어날 세금이 소비자에 전가 우려도

금융·보험업을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만큼, 교육세 인상이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박수영 기재위 야당 간사는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학령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야 하는 판인데 계속 징수하는 상황”이라며 “교육세를 더 걷을 일이 아니라 줄여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 세제개편안 분석’에서 교육세율 인상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교육세 부담분을 금융·보험 서비스 가격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며 “또한 서비스 가격결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강한 회사의 영향력, 가격결정 구조의 복잡성, 산업의 필수재·공공재적 성격에 따른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탄력성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교육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의 전가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與 “항명 검사 징계법” vs 野 “李 대통령 공소취소 원천차단”

‘檢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공방 지속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벌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항명하는 검사를 징계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법으로 원천차단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대결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정치검사

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하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제가 직접 검사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며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 항명하는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과 파면이 가능하게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겠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내에 제출할 것”이라며 “정치 검사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수사와 조작수사의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2일)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며 “그러나, 현

실에서는 권력층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 등 비법률적인 원인으로 인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행사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폐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정치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중지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 중, 1심에서 중지되어 있는 3개의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

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등 3개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법 시스템을 확립하고, 검찰권이 국민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외국인은 통장 하나 만들기도 어려워...”
“한국은 주말이라... 해외 송금은 당연히 안 되겠지?”
“은행 상담 때마다 한국어가 안 통해서 답답해”

| 방송인 수잔 샤키야 |

15년 간 한국 생활에 완벽 적응한 수잔 샤키야님은
오늘도 하나은행과 함께 행복을 키워가고 계십니다.

HANA THE EASY 하나더이지

외국인의 한국생활 필수 파트너

외국인 손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 외국인 전용 맞춤 금융 / 간편 금융 / 다국어 금융 상담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편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치매사고 ‘공백’ 메운 일본… 한국도 복층 보험체계 필요”

치매·경도인지장애 10% 시대
재정부담 줄일 ‘보험 모델’ 시급

日 지자체 80곳 ‘복층 보험’ 도입
사각지대 대비 위로금+배상정산

치매 사고의 구제 공백을 ‘보험’으로 메운 일본 지자체들이 지난 2016년 1곳에서 최근 80여곳으로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6년 ‘인지증 사회’(치매·경도인지장애 합산 인지장애 인구가 전체의 약 10%에 이르는 상태)를 앞두면서 조례와 단체보험을 결합한 공공·민영 보험 해법이 시급해졌다는 지적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치매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적 사회 과제다. 특히 인지장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치매 환자의 가해 사고가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자체에게 민영보험 제도 도입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치매 정



Chat GPT가 생성한 일본, 한국 치매 민영보험 이미지.

/Chat GPT

책 제도화에 나섰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일본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지자체들은 지난 2016년 최고법원이 치매 간병 가족의 감독책임을 제한함에 따라 피해자 구제 사각지대 해소와 치매 부양가족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피해 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이 중 고베시는 ‘복층(2층) 구조’로 주목을 받았다. 1층은 피해자에게 즉시 지급하는 위로금이다. ▲대인 사망 최대 3000만엔 ▲후유장해 75만~3000만엔 ▲

입·통원 위로금 15만엔 ▲휴업손실 5만엔 등을 담았다. 대물 피해도 재물손괴 10만엔, 휴업손해 5만엔을 보장한다.

2층은 배상책임보험으로 대인·대물 합산 한도를 2억엔으로 두고 앞서 지급한 위로금은 정산 시 공제한다. 여기에 실화책임 보상(사고당 1000만엔, 가구당 30만엔)과 가해자 본인 상해(사망·후유장해 최대 100만엔), 타지역 사고 위로금까지 있어 ‘책임 불명확·소액·간접 피해’의 사각지대를 좁혔다.

일본의 복층구조는 배상책임이 끝내

확정되지 않더라도 선지급 위로금은 환수하지 않는 설계가 핵심이다. 피해 회복의 속도를 제도가 뒷받침하도록 ‘보험’이 전면에 배치된 셈이다.

보험업계의 약관·상품도 조정됐다. 가족 범위를 재정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이 이뤄졌고 실종조사비·개인배상책임을 묶은 특약, 성년후견인 배상책임 담보 등 생활밀착형 배상 패키지가 뒤따랐다. ‘판결→지자체 제도→약관·상품’이 한 호흡으로 연결되면서 현장 작동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반면 국내의 시간표는 더 촉박하다. 우리나라의 고령·초고령 비중 확대 속에 치매와 경도인지장애가 빠르게 늘고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약 27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특히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가족에게 귀착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책임은 나중에 엄정히 따지더라도 피해 회복은 먼저’라는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국내형 해법으로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단체보험 도입과 ‘2층(위

로금·배상정산) 구조’ 정착을 제안했다. 1층 위로금은 책임이 불명확하거나 소액·간접 피해가 많은 치매 사고의 공백을 메우고 2층 배상책임은 법적 책임이 확정될 때 본지급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가입·인수·지급·정산을 보험사에 위탁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유병률과 재정 여건에 맞춰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도 제시됐다. 정부가 표준 모델과 국고보조 등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하면 현장 적용 속도는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치매 종합정책은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치매 사고의 배상책임 사각지대에 대비하기 위해 1층 위로금을 포함한 복층 체계의 구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해당 보험을 사업으로 추진 및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IPO 도전 삼수’ 케이뱅크, 순익 48% ‘뚝’

3분기 순익 192억… 누적 1034억
기업대출 확대에도 비용 부담 늘어
IPO 재도전 앞두고 체질개선 속도

케이뱅크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1034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1224억원) 대비 15.5% 감소한 수준이다.

케이뱅크는 13일 실적발표를 통해 3분기 192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48.1%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IT투자확대와 외형 성장을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일반 관리비가 늘어난 영향이다. 수신 잔액은 30조4000억원, 여신 잔액은 17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38.5%, 10.3% 증가했다.

◆ 기업대출 중심 성장

여신잔액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어갔다.

케이뱅크는 올 9월 개인사업자 대출 누적공급액 3조원을 돌파했다. 3분기 말 기업대출 잔액은 1조93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1% 급증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올해 여신 잔액 증가분의 절반이 기업대출에서 발생하며 가계대출 의존도를 크게 낮췄다”고 말했다.

3분기 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1115억원을 기록했다. 비이자이익



케이뱅크 사옥.

은 2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8% 늘었다. 머니마켓펀드(MMF) 등 운용 수익이 증가했고,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에 따라 펌뱅크 수수료도 늘었으며 대출 비교 서비스와 플랫폼 광고 수익도 확대됐다.

3분기 연체율은 0.56%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하락했다. 고정이자여신비율은 0.54%,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은 15.01%를 기록했다. 순이자마진(NIM)은 1.38%다.

3분기 케이뱅크의 평균 중저신용대출 잔액 비중은 33.1%, 신규 취급 비중은 33.9%로 목표 비중(30%)을 웃돌았다.

케이뱅크는 기업 대출 확대, 인공지능(AI) 전환, 디지털자산 리더십 강화를 통해 성장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달

업비트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제휴를 1년 연장했고, 지난 7월에는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을 출원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 실천과 디지털자산 혁신, AI 전환을 통해 성장 속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 IPO 세번째 도전

케이뱅크는 지난 10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예비심사 통과후 내년 상반기 코스피 상장이 목표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2022년과 지난해 두차례 상장추진에 나섰다지만 고배를 든 바 있다. 2022년 9월에는 증시 입성을 추진해 약 7조원의 기업가치를 희망했지만, 금리 인상기에 공모주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얼어 붙으면서 공모 절차에 나서지 않았다. 지난해 10월에 다시 수요예측에 나섰다가 시장 반응이 좋지 않아 결국 철회했다. 목표 기업가치는 최대 5조3000억원이었다.

업계에서 이번 기업공개(IPO) 추진은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적투자자(FI)와 약속한 상장 기한이 내년 7월까지로, 이를 넘기면 FI는 동반 매각청구권이나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교체공사 ▲배관교체공사 ▲옥상 방수공사)에 지하주차장(바닥) 도장공사 등 6개 분야를 추가해 총 10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단지 정보와 간단한 시설물 정보를 입력하면 되며, 주요 장기수선공사의 추정공사비, 공사시방서, 유의사항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SGI서울보증 본사에서 열린 ‘제9기 SGI 드림파트너스 출범식 및 워크숍’에서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맨 뒷줄 왼쪽 여섯번째)와 봉사단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GI서울보증

취약계층 교육·주거 지원에 환경까지 SGI서울보증, 사회공헌 ‘전방위 확대’

‘SGI ION’ 바탕 사회공헌 실천 활발
외부기관과 협업, 중소기업 지원도

SGI서울보증이 임직원이 중심이 된 사회공헌활동으로 상생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런칭한 사회공헌 브랜드 ‘SGION’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면서 미래세대와 지역사회, 중소기업과 서민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우선 ‘미래세대 성장파트너’로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의료와 관련해 백혈병, 소아암 환자 등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때 헌혈증서와 가발 제작비를 함께 제공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 및 보육시설 퇴소대학생 등의 장학금·생활비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억8000만원을 전달했다. SGI서울보증의 해외 거점이 있는 자카르타, 하노이의 현지 초등학교엔 노트북을 지원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시 주거안심동행 민관 협력사업에 참여해 공사비와 자재비 1억 5000만원을 후원한다.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환경개선 등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함께하는 나눔 파트너’로서 임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봉사단 ‘SGI 드림파트너스’를 조직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SGI 드림파트너스는 지난 2016년 출범 이후 2024년까지 누계 참여 인원 2219명, 누계 봉사시간 1만1400시간을 기록했다.

올해는 특히 도시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실미도 해변 환경정화, 환경 분야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단원들이 조립한 태양광 랜턴 기부, 업사이클링 카드지갑 제작 등과 같은 비대면 활동도 조화롭게 실천한다. 임직원들도 자전거와 계단 이용, 머그컵과 텀블러 사용 등 일상에서 환경보호 활동으로 모은 포인트와 매칭한 금액을 환경단체에 기부한다.

아울러 ‘동반성장 상생 파트너’로서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협업으로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 창업기업,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 등을 통해 상생의 기업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비전 ‘WITH SGI’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상생 경영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LH, 공동주택 온라인 기술자문 확대

장기수선공사 기술자문 추가
총 10개 분야 서비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온라인 기술자문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LH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 운영·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 개편을 통해 기존 장기수선공사 기술자문 4개 분야(▲내

수입차 ‘1억대 전기차’ 공세 본격화 보조금 배제 속 트렌드·가격 관건

프리미엄 EV 韓 상륙 가속

테슬라, 사이버트럭 대량 포착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 출시 임박
지커, 7X 합류하며 경쟁 격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이 프리미엄 전기차 격전지로 급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중국의 지커 등 수입차 업체들이 1억원에 육박하는 초고가 전기차 출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형 사이버트럭이 최근 평택항에서 대거 포착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평택항으로 들어온 물량이 100여대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이버트럭 AWD 트림은 상온 복합 520km, 사이버비스트 트림은 496km의 주행거리를 각각 인증받았다. 최대 견인력은 5톤에 달하며 사이버비스트는 제로백 2.7초로 슈퍼카급 성능을 확보했다. 국내 출시 가격은 1억 4500만원, 고성능 트림인 사이버비스트는 1억 6000만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GM의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도 전기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에스컬레이드 IQ는 주행거리는 205kW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739km(복합 기준)으로 국내 최대 수치를 확보했다. 가격은 1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가격이다. 두 모델 모두 정부



테슬라 사이버트럭.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에 대해 5500만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 5500만원~8500만원은 50%, 8500만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출시 후 꾸준히 품질 논란을 겪고 있다. 강철 외장 패널 접합 문제와 인버터 결함, 경고등 오류 등으로 10건 이상의 리콜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오류까지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양사는 첨단 주행 기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코리아는 완전자율주행(FSD) 감독형 서비스 출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테슬라코리아는 공식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FSD 감독형, 다음 목적지: 한국, 곧 출시(Coming Soon)”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글과 함께 국내 도로 등에서 FSD 감독형을 통해 시범 자율주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테슬라 차량의 주행 모습을 담은 영상도 올렸다.

캐딜락이 출시하는 에스컬레이드 IQ는 GM의 대표 기술 중 하나인 ‘슈퍼크

루즈’가 국내 최초로 적용된다. 약 2만 3000km 이상의 국내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핸즈프리 주행 보조 기술로, 기존 에스컬레이드가 가지던 주행 안정감에 장거리 편의성을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고성능 전기차 브랜드 지커도 국내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공략에 합류한다. 지커는 내년 상반기 국내 출시를 목표로 전시장 등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커는 중형 SUV 7X를 전면에 내세울 전망이다. 7X는 최고 639마력을 내는 고성능 전기모터를 탑재했으며 주행거리는 중국 기준 최장 543km 수준이다. 중국 현지에서 7000만원~8000만원대로 판매된다는 점에서 국내 가격은 좀더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전기차 시장은 가격은 낮고 성능은 준수한 ‘가성비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프리미엄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성훈 기자 ysw@metroseoul.co.kr

HD현대-인도 ‘조선 동맹’ 확대 기술·설계·생산까지 실질 협력

정기선 회장-푸리 장관 회동
울산 조선소 시찰하며 역량 확인

HD현대가 인도 정부와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에 나선다. HD현대는 정기선 회장이 13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하딧 싱 푸리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장관을 만나 상호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는 구란갈랄 다스 주한 인도대사를 비롯해 예사 스리바스타바 석유천연가스부 차관보, 락쉬마난 해운 수로부 차관보, 아룬 쿠마 싱 인도 석유천연가스공사(ONGC) 회장, 마두 나이트 코친조선소 회장, 스릴 쿠마 싱 구자라트주디나달 항만청장 등 공공기업 최고 경영자(CEO) 및 조선-해운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도 대표단은 정기선 회장의 안내로 HD현대가 보유한 선박 설계·건조 역량과 스마트 조선소 운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인도 조선업의 역량 강화와 선대 확대, 기술 발전을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인도 대표단의 방한은 현재 인도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마리티엄 암릿 칼 비전 2047’(Maritime Amrit Kaal Vision 2047) 추진과도 맞물려 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지난달 27일 열린 ‘퓨처테크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그룹의 미래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HD현대

인도는 해운·항만·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전반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현재 1500척 규모인 상선을 2500척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5위권 조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이를 위해 인도 정부는 약 24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며, 지난 10월에는 선박 신조 확대를 위해 약 80억 달러 규모의 지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HD현대는 올해 7월 인도 최대 국영 조선사인 코친조선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설계·구매 지원 ▲생산성 향상 ▲인력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협력 범위를 합정 사업까지 확대하며 밀접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유혜은 기자 chaledhale@

삼성, 영화제서 ‘시네마 LED 오닉스’ 알린다

AWFF서 개·폐막작 오닉스로 상영

삼성전자가 국제 영화제에서 극장 전용 시네마 LED 오닉스를 알린다.

삼성전자는 오는 2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위치한 컬버 극장에서 열리는 ‘제 11회 아시안 월드 필름 페스티벌(AWFF)’에 공식 후원사로 참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영화제는 삼성전자가 2017년 세계 최초로 선보인 극장 전용 시네마 LED 오닉스 스크린이 설치된 컬버 극장에서 영화제 개·폐막작 상영을 비롯해 시상식 등 주요 행사를 진행한다.

‘아시안 월드 필름 페스티벌’은 30여

개국 이상의 아시아 국가에서 호평 받은 영화들을 한 자리에 모아 소개하는 국제 영화제다.

삼성전자는 이번 영화제 후원을 통해 삼성 시네마 LED 오닉스 스크린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네마 경험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패넬 세션 ‘삼성 오닉스: 시네마 경험을 재정의하다’도 15일에 개최한다.

이 세션에서는 삼성 오닉스를 비롯한 시네마 LED 기술의 발전이 제작자나 촬영 감독 등이 의도한 시각적 요소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관객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한다.

/차현정 기자

삼성 하만 레디 디스플레이, 업계 최초 HDR10+ 인증

차량 디스플레이 새 기준 제시

삼성전자의 전장·오디오 자회사 하만의 레디 디스플레이 제품이 HDR10 플러스(HDR10+) 자동차 인증을 받았다.

하만은 최근 자사 레디 디스플레이 제품이 업계 최초로 HDR10 플러스(HDR10+) 자동차 인증을 획득해 차량 내 디스플레이 성능에 대한 업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만은 삼성전자, 파나소닉과 협업하여 차량에서 HDR(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HDR10 플러스 자동차 기술 사양을 선도적으로 정립했다. HDR10 플러스 테크놀로지 LLC(HDR10+ 관련 컨소시엄 연합)에서 제정한 이 인증을 받은 자동차 디스플레이는 차량 내 변화하는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도 HDR 콘텐츠를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다.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테스트들은 디스플레이가 다양한 차량 운행 상황·환경 내 조명 조건과 시야



하만의 자사 레디 디스플레이 제품이 HDR10 플러스(HDR10+) 자동차 인증을 획득했다. /삼성전자

각에서 일관된 밝기, 대비, 색상 정확도를 갖춰 영화 같은 고해상도 화질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준다. 또한 이 인증은 주변의 조명에 따라 밝기와 색상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한낮의 햇빛이나 도시의 불빛에서 운전할 때 일관된 시청 경험을 보장하는 HDR10 플러스 ‘어댑티브’ 기술도 적용한다.

이번 기술 인증은 하만과 삼성전자 하만협력팀의 협업을 통한 기술 표준화

주도가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 성과로 하만은 업계 최초의 HDR10 플러스 자동차 인증 디스플레이를 선보이게 되었으며 운전자와 승객은 어떠한 조명 조건에서도 영화 같은 깊이감, 디테일, 일관성을 갖춘 생생한 영상을 즐길 수 있다.

이번 자동차 업계 최초 HDR10 플러스 도입은 단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기술 인증을 넘어선 하만의 고품질 오디오 브랜드 포트폴리오와 시너지지를 통해 차량 내에서 고객들의 차별화된 고해상도 비디오와 몰입감 높은 고품질 오디오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하만 레디 디스플레이 사업 책임자인 실과 델리 상무는 “우리는 오랫동안 거실에서의 경험을 차량 안으로 가져오는 것을 구상해왔다”며 “세계 최초 HDR10 플러스 자동차 인증 획득은 이러한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며 자동차 제조사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몰입감 넘치는 차량 내 디스플레이 품질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롯데케미칼, 파키스탄 법인 LCPL 지분 매각

총 1276억 자금 확보 마무리

롯데케미칼은 자회사인 LCPL(롯데케미칼 파키스탄 법인) 지분 75.01% 매각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LCPL은 폴리에스터 섬유, 산업용 원사, 페트(PET)병 등에 활용되는 고순도 테레프탈산(PTA)을 연간 50만 톤 규모로 생산하는 회사다.

매수인은 파키스탄 사모펀드 ‘아시아 팩 인베스트먼트(API)’와 아랍에미리트 석유·화학 트레이딩 기업 몽타주 커머디티즈 FZCO(Montage Commodities FZCO)가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 ‘PTA 글로벌 홀딩’(PTA Global Holding Ltd)이다.

이번 매각은 2025년 2월 19일 공시 후 진행돼 9월 주식공개매수 절차 종료를 거쳐 12일 거래대금 지급과 주식 교환이 최종 마무리됐다. 총 매각대금은 980억원이며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6월 수취 완료한 3개년 배당금 296억원을 포함해 총 1276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롯데케미칼은 2023년부터 범용 제품 중심의 LCPL을 사업 포트폴리오상 비핵심 사업으로 분류하고 매각을 추진해 왔다. 이번 거래로 롯데케미칼은 파키스탄 내 규제금융 및 환율 변동 등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동시에 재무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원관희 기자 wkh@

1~3분기 신규 벤처투자 10조 육박… 바이오 ‘약진’ ICT ‘주춤’

중기부, 벤처투자·펀드 동향 발표
3분기 기준 투자실적 4조원 돌파
한성숙 장관 “산업저변 확대 총력”

벤처투자시장에 훈풍이 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3분기 신규 벤처투자, 벤처펀드 결성액이 전년에 비해 두자릿수 이상 늘었다. 특히 분기기준 투자실적은 15분기만에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에 따르면 1~3분기 신규 벤처투자는 9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투자 기업수는 3446개사에서 3136개로 9% 감

〈국내 벤처투자 실적 추이〉

구분	20년 1~3분기	21년 1~3분기	22년 1~3분기	23년 1~3분기	24년 1~3분기	25년 1~3분기
투자금	54,110	108,679	102,126	77,118	86,463	97,780
피투자기업	2,602	3,323	3,169	2,996	3,446	3,136
평균투자액	20.8	32.7	32.2	25.7	25.1	31.2

단위 :억원, 개사

/중소벤처기업부

소했지만, 기업당 평균투자액은 25억 1000만원에서 31억2000만원으로 31.2% 늘었다.

특히 3분기 벤처투자는 전기 대비 32%, 전년동기 대비 28% 증가한 4조 4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단일분기 실적이 4조원을 돌파한 것은 2021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업력별로는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과 후기기업 투자가 모두 13.1%씩 늘었다. 업종별로는 바이오·의료가 전년동기 대비 25.3% 증가한 1조7122억원을 찍은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 2조2000억원을 돌파했던 ICT 서비스는 15.6% 하락한 1조8862억원으로 주춤했다.

1~3분기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한 9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12조7364억원)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3년 만에 반등세로 전환했다. 민간부문은 출자자의 83%를 차지하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연기금·공제회의 출자는 역대 최대인 837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1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지

한 비수도권 기업은 13개사로 조사됐다. 셀락바이오, 트리오어, 소바젠 등 바이오기업 5개사와 라이온로보틱스, 넥센서 등 전기·기계·장비 기업 5개사 등이 높은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앞세워 대형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한성숙 장관은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규모가 모두 두 자릿수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바이오, 로봇 등 다양한 산업이 성장 중이므로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지방투자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이어 벤처투자 시장 40조원 조성을 위해 ‘벤처 4대강국 도약 방안(가칭)’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LS그룹, 3년 연속 영업이익 1조 돌파

전기·전력·소재 중심 성장 흐름 지속
“반도체 분야 등 전방위적 사업 확대”

LS그룹(회장 구자은·사진)이 전기·전력·소재 중심의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 흐름을 확대하고 있다.

LS그룹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영업이익 1조원을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자산은 2022년 26조2700억원에서 올해 35조9520억 원으로 늘어 4년간 약 37%, 약 10조원 증가했다.

전력 분야에서는 LS전선의 사업 확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LS전선은 해저케이블·초전도케이블·초고압케이블 기술을 앞세워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과 대용량 전력 분배 시스템인 버스덕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북미 전력 인프라 시장을 확대하고 있고 멕시코 신규 공장까지 더해 글로벌 공급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에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케이블 공장을 조성하고 있다. 공장은 2027년 준공될 예정으로,



완공 시 북미 해상풍력·HVDC 시장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회사 LS마린솔루션도 초대형 HVDC(고전압직류송전) 포설선 건조에 착수해 글로벌 해저망 구축 수요에 본격 대응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전력변환장치(PCS) 제품으로 보험협회 시험소(UL) 인증을 확보하며 북미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2014년부터 UL 인증을 본격 확보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300여건에 달하는 UL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비철금속소재기업인 LS MnM은 울산·새만금에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2차전지 소재 공장을 건설해 연간 6만 2000톤의 황산니켈 생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LS엠트론은 북미 트랙터 시장 대응을 위해 텍사스 조립공장 and 부품유통센터(PDC)를 확충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인 E1은 수소·신재생·전기차충전 등 신사업을 확대하며 과천·고양·강서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여수·인천·대산 기지에는 안전환경 포털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도 두드러진다. 미국·유럽 권선 시장 1위인 LS그룹의 미국 계열사 에식스솔루션즈는 테슬라·토요타 등에 전기차 구동모터용 특수 권선을 공급하고 있다. 북미 변압기 교체 수요와 AI 데이터센터 증가로 변압기용 특수 권선(CTC) 주문도 급증해 생산능력을 2030년까지 1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LS그룹 관계자는 “LS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경영 전략이 주효한 결과”라며 “지난 2022년부터 전기·전력·소재 등 기존 주력 산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 없는 전력(CFE)과 배터리·전기차·반도체 관련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낙점해 전방위적인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위아, ‘CIWS-II’ 함포체계 선포

〈해상용 근접방어무기〉

해군 실전 운용함정 탑재 예정

현대위아가 해상용 근접방어무기(CIWS-II)의 함포체계를 개발했다.

현대위아는 지난 12일 경남 창원시의 해상조립장에서 CIWS-II 함포체계를 처음으로 출고했다고 13일 밝혔다. CIWS-II는 군 함정에 접근하는 전투기, 대함 미사일, 고속정 등을 통합 센서와 레이더 등으로 탐지·추적하고 고속 사격하는 함정의 최종 방어무기다.

현대위아는 CIWS-II에서 사격 및 구동을 담당하는 함포체계를 개발했다. 출고한 함포체계는 체계사인 LIG넥스원에 납품된다. 완성된 CIWS-II는 해군 실전 운용함정에 최초로 탑재될 예정이다.

현대위아는 CIWS-II 함포체계를 ‘포탑부’와 ‘포탑제어부’로 나누어 개발했다. 포탑부에는 분당 최대 4000발 이상의 발사속도를 지닌 30mm 개틀링 기관총을 장착했다. 또 미사일 관통탄(MPDS)과 관통파편탄(FMPDS) 등 다양한 전용 탄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함정의 생존 가능성을 높였다.



12일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현대위아 해상조립장에서 선보인 ‘CIWS-II 함포체계’의 모습. /현대위아

포탑제어부는 포탑부를 구동하고, 원격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또 함포의 작동 상태와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자체 점검 기능도 갖췄다.

현대위아는 향후 이날 선보인 CIWS-II 함포체계를 본격적으로 양산해 해군에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오랜 기간 함포를 생산하면서 쌓은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CIWS-II의 함포체계 개발을 완료했다”며 “현대위아는 품질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육해공을 아우르는 영역에서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늘어가는 장애인기업… 매출·영업익 급감

제 20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

사장님 10명 중 6명 ‘60대 이상’
지난해 기준 평균 매출 4억 미만

10월10~14일은 ‘장애인기업 주간’인데 장애인 사장님들은 10명중 6명이 60대 이상 고령일 정도로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매출, 영업이익 등 버는 돈도 녹록지 않다. 2023년 기준 장애인기업 1곳당 평균 매출액은 4억원 아래로 주저앉았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제20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를 열고 20년 성과를 기념했다.

중기부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대표자 연령이 60대 이상인 장애인기업이 전체의

6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 이하는 고작 1.8%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기업 숫자는 2020년 당시 11만 5347개에서 16만4660개(2022년), 17만 4344개(2023년) 등으로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벌이는 쉽진 않은 모습이다.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기업 1곳당 평균 매출액은 3억9960만원으로 4억원에도 못미치고 있다. 전년도 평균 매출액은 4억5630만원으로 1년새 12% 넘게 감소했다. 2020년에도 평균 매출액은 4억1600만원을 기록, 4억원대를 웃돌았다.

특히 1곳당 평균 영업이익은 2022년 4630만원에서 2023년 3750만원으로 19%나 줄었다. 2020년 당시 평균 영업이익은 3760만원으로 2022년과 크게 다

르지 않았다. 장애인기업의 몸집과 내실 모두 열악한 실정이다.

다만 체감경기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장애인기업 경기 체감 BSI의 경우 3월 당시 50.8이던 것이 8월에는 70.3을 기록하더니 9월에는 80.2까지 올랐다.

이날 전국장애경제인대회에선 피에스케이리테일 박상규 대표가 모범 장애인 표창을 받았다.박 대표는 수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해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의용소방대 지대장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흥도시공사는 장애인기업 공공구매 유공기관으로 선정됐다. 시흥도시공사는 체계적인 공공구매 목표 설정과 전사적 참여를 통해 2024년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의무구매 비율(1%)의 4배 이상 달성, 모범기관으로 평가받았다

/김승호 기자

롯데百-동반위, 협력사 ESG 지원 MOU

지속가능한 유통 생태계 조성 등 협력

롯데백화점이 5년째 중소 협력사 ESG 경영 지원에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롯데백화점과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측은 2021년 이후 5년째 중소 협력사의 ESG 경영 역량 강화를 함께 이어오며 유통업계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모범적인 상생 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올해도 5000만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중소 협력사들의 ESG 경영 실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협력사와 함께 공급망 전반의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유통 생태계 조성에 힘을 계획

이다.

참여 중소기업에는 동반위가 개발한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맞춤형 ESG 지표 도출부터 교육, 컨설팅, 개선활동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기업이 스스로 ESG 수준을 점검하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동반위는 이번 지원사업의 기획과 운영을 총괄하며 ESG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에는 동반위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동반위는 앞으로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ESG 협력 모델을 정착시키고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높여갈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미국 휴스턴 해양 기술 전시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개최 기간 : 2026년 5월 4일 (월) ~ 2026년 5월 7일 (목)
개최 장소 : 미국 휴스턴 / NRG Center

OTC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는
매년 5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해양 플랜트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회는 오일, 가스, 에너지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참가하며,
최신 기술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주요 구성 및 프로그램

- 유정기기 및 오일가스 수송 관련 제품
-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 석유 및 가스 운송 장비
- 탐사장비
- 밸브 및 안전 장비
- 해저 파이프라인 및 플로우라인 기술
- 기술 발표 및 세미나
- 워크샵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STEERING OFFSHORE ENERGY INNOVATION INTO THE FUTURE

박람회 및 전시회

NO	행사 명	개최 기간	국가 및 도시
1	엠티엠 메탈 월드 엑스포 [MTM EXPO SHANGHAI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2	상해 조선해양기술 박람회 [MarinTEC CHINA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5일	중국 / 상하이
3	상해 국제 금속 및 야금 박람회 [Metal World Expo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4	2026 국제 금형 주조 다이캐스팅 전시회 [EUROGUSS]	26년 1월 13일 ~ 1월 15일	독일 / 뉘른베르크
5	와이어/튜브 전시회 2026 [Wire&Tube Düsseldorf 2026]	26년 4월 13일 ~ 4월 17일	독일 / 뒤셀도르프
6	휴스턴 오프쇼어 박람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26년 5월 4일 ~ 5월 7일	미국 / 휴스턴
7	고기능 금속 전시회 2026 [Material JAPAN 2026]	26년 5월 13일 ~ 5월 15일	일본 / 오사카
8	밸브 월드 엑스포 캘거리 2026 [Valve World Expo Calgary 2026]	26년 6월 3일 ~ 6월 4일	캐나다 / 캘거리
9	상해 다이캐스팅 산업 박람회 2026 [CHINA DIECASTING 2026]	26년 7월 15일 ~ 7월 17일	중국 / 상하이
10	슈투트가르트 국제 금형 박람회 2026 [Moulding Expo 2026]	26년 9월 14일 ~ 9월 18일	캐나다 / 캘거리
11	상해 국제 와이어 및 케이블 박람회 2026 [Wire&Tube Shanghai 2026]	26년 9월 21일 ~ 9월 24일	중국 / 상하이
12	어반스틸 엑스포 2027 [USE 2027]	27년 4월 20일 ~ 4월 23일	독일 / 뒤셀도르프



고객의 일정과 목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일정 구성 및 솔루션 제공



글로벌 박람회 및 전시회
에어텔 및 입장권 예약



국가별 비자 신청 대행



개별여행, 인센티브 관광
MICE 등 여행 솔루션 제공

www.snsmiles.com

기업 전문 여행사, 에스앤마일즈



QR코드 스캔
카카오톡 채널 연결
등록후 상담원연결 가능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20 S&M빌딩 6층
문 의 : 강성민 차장 T. 02-3487-2800 F. 02-583-4135 E. smkang@snsmiles.com

현장 찾은 기업대표들

“NC만의 색 다시 세울 것
슈팅장르 등 다양한 시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만든 게임 다시 새롭게 만들고 있어
아이온2, 더 나은 세계 위한 시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지스타 현장에서 “정답은 없지만 엔씨소프트만의 색을 만들겠다”며 아이온2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약속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13일 오프닝세션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을 계속하겠다”며 엔씨의 방향성과 콘텐츠 실험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가 만든 게임을 다시 새롭게 만들고 있다”며 “선택받는 게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정답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게임 산업의 변화 흐름을 언급하며



“게임은 더 이상 수동적 소비가 아니다. 플레이어가 직접 세계를 만들어가며 읽고 섞이는 경험이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즐거움은 게임 속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연결되는 경험”이라며 “엔씨만의 색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엔씨가 준비 중인 신작의 방향성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새로운 슈팅 장르 시도를 포함해 콘텐츠를 다양한 각도로 비춰보고 있다”며 “아이온2는 더 나은 세계를 보여주기 위한 시도이며, 우리가 가진 열정을 세계 최초로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스타에 대해 “과거의 미래를 다시 여는 첫 장면 같은 자리”라며 “게임을 통해 위로받고 새로운 감동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블록체인-게임 결합 대한
비전·잠재력 굳건히 믿어”

장현국 넥서스 대표

“앞으로 플랫폼 고도화·게임에 집중
로한2 출시… 사투트는 온보딩 준비”

장현국 넥서스 대표가 13일 부산 벅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5 미디어 간담회에서 “앞으로 50년의 삶도 블록체인과 게임의 결합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주고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지 입증하는 삶을 살겠다”면서 “블록체인과 게임이란 두 세상의 결합에 대한 비전과 잠재력에 대해 굳건하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지난 10개월의 성과를 간략히 정리했다. “가상화폐 생태계가 순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10개월이었다”며 “올해 4월 메인넷 어드벤처를 출시했고 주요 게임



들도 론칭했다. 필리핀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와 코빗 등 주요 거래소에도 상장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다고 진단했다. 장 대표는 “지금의 성과에 대해 시장의 평가나 추가, 코인 가격 등을 볼 때는 아직은 미진하다고 보는 것 같다”며 “세상의 평가는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향후 전략의 축은 플랫폼 고도화와 게임에 맞춰진다. 그는 “앞으로의 크로스 생태계는 플랫폼 고도화와 게임에 집중하려 한다. 지난 9월 로한 2 글로벌을 출시했고 리듬게임 사투트를 온보딩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이미 계약한 게임들이 여럿이고 론칭을 위한 계약을 논의 중인 게임들도 다양하다”고 밝혔다.

/부산=최빛나 기자

전 세계 개발자 이야기 듣는다… ‘창작·스토리텔링’ 조명

44개국 1273개사, 3269부스 규모
B2B 전시관 네트워킹 라운지 확장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논의 강화

‘이야기와 서사의 확장’을 주제로 한 ‘지스타 2025’가 부산 벅스코에서 개막하며, 엔씨소프트·넷마블 등 국내 대표 게임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쇼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가 13일 부산 벅스코에서 개막하며 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 지스타는 44개국 1273개사, 3269부스 규모로 진행되며 ‘이야기와 서사의 확장’을 주제로 창작과 스토리텔링의 힘을 조명한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최재환 문체부 과장, 박병무 엔씨소프트 대표, 정연욱 의원, 김성희 의원, 김병규 넷마블 대표, 김태영 웹젠 대표, 이진혁 크래프톤 부사장 등이 지스타 개막을 알리는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최빛나 기자

이날 오전 열린 개막식에는 박병무 엔씨소프트 대표, 김병규 넷마블 대표, 김태영 웹젠 대표 등 주요 게임사 경영진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주요 내빈들

은 벅스코 제1전시장 입구에서 스위치를 함께 눌러 게임 축제의 개막을 알렸다.

조영기 지스타조직위원장은 “지스타

2025는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전 세계 개발자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무대”라며 “창작의 언어와 스토리텔링의 깊이, 그리고 그 이야기가 경험으

로 전환되는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B2C 전시관에는 메인 스폰서인 엔씨소프트를 비롯해 넷마블, 크래프톤, 웹젠, 그라비티 등 국내외 대표 게임사들이 참여했다. B2B 전시관은 지난해보다 1.5배 확장된 네트워킹 라운지를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논의를 강화했다.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삼성전자, 넥서스 등이 주요 참가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부산e스포츠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지스타컵 2025’와 코스튬플레이 무대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개막 첫날 오전부터 관람객들이 긴 줄을 이루며 입장을 기다리는 등 현장은 열기로 가득 찼다.

/부산=최빛나 기자

국내 게임사, 신작·체험·전시전략 경쟁 격화

넷마블 이블베인 등 5종 기대작 출품
삼성전자와 무안경 3D 활용 영상전시

엔씨 아이온 2 등 메가 IP 라인업 선봬
PC·모바일 중심서 콘솔·글로벌 방향

그라비티 팬 체험 강화로 B2C 확대
웹젠 신작 공개… 브랜드 친밀도 제고
크래프톤 ‘팰월드 모바일’ 최초 공개

국내 대표 게임사 5곳이 ‘지스타 2025’에서 대형 부스와 신작 라인업을 앞세워 B2C 중심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게임산업을 대표하는 넷마블·엔씨소프트·그라비티·웹젠·크래프톤 등은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벅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5에 대거 참여하며 각자 별 전시 전략을 공개했다.

◆넷마블, 5종 대형 기대작 3D로 생생한 체험 제공

넷마블은 이번 행사에서 ‘이블베인’,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몬길: STARDIVE’, ‘SOL: enchant(솔: 인첸트)’ 등 5종의 대형 기대작을 출품했다. 부스는 112개, 시연대는 145대 규모로 마련해 관람객 체험을 극대화했다. 기술 협업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최신 모니터 및 모바일 기기 활용해 무안경 3D 및 신제품 ‘3D 스페셜 사이니지’로 영상 전시를 구현했다.

이를 통해 브랜드 체험과 기술감각을 강조하며 캐주얼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의 전환을 모색했다.

◆엔씨, 메가 IP 라인업 선봬

엔씨소프트는 지스타 2025에서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며 전시장 내 핵심 공간을 대형화했다. 행사 주제인 ‘이야기와 서사의 확장’을 반영해 차세대 MMORPG ‘아이온2’ 등 메가 IP 라인업을 선보인다. 그간의 PC·모바일 중심에서 콘솔·글로벌 방향으로 나아가며 전시 전략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췄다.

◆그라비티, B2C접점 확대 주력

그라비티는 ‘라그나로크’ IP를 중심

으로 18종 타이틀 라인업을 준비해 A03 부스에서 전개했다. ‘START with GRAVITY’란 슬로건으로 굿즈샵·스탬프 미션 등 팬덤 체험형 요소를 강화하며 B2C 접점 확대에 주력했다. 기존 온라인 중심 사업에서 체험·팬덤 확장을 통한 업데이트 전략을 보여줬다.

◆웹젠, 브랜드 친밀도 제고

웹젠은 약 100부스 규모로 전시관을 마련하고 전략 디펜스 신작 ‘Gate of Gates’의 데모를 현장에서 공개했다. 코스프레·개발자 토크 등 체험형 이벤트도 병행하며 브랜드 친밀도 제고에 나섰다. IP 기반 캐릭터 브랜드 연계와 신작 발표를 통해 업계들 견인하려는 모습이다.

◆크래프톤, 콘텐츠 확장 시도

크래프톤은 A01 부스 위치를 확보하고 ‘Palworld Mobile’의 세계 최초 공개를 통해 글로벌 빅 IP 확장 전략을 내세웠다. 또한 ‘PUBG’ 테마카페 존을 마련해 관람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브랜드 체험을 강화했다. 기존 FPS 중심 틀을



지스타2025 넷마블 부스.



지스타2025 엔씨 부스.



지스타2025 웹젠 부스.



지스타2025 크래프톤 부스.

넘어 캐주얼·라이프스타일형 콘텐츠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엿보였다.

현장에서 만난 대학생 이모씨는 “3년째 오고 있다. 1시간 30분이나 기다렸는데 1개밖에 못했다. 지난해보다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실히 늘어났다. 토요일까지 계속 와서 모든 신작을 다체

험하고 같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스타 2025에서 부스 규모 확대, 신작 라인업 공개, 기술 협업 및 팬 체험 강화라는 공통된 축을 갖고 경쟁에 나섰다. 특히 단순히 게임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형태로 진화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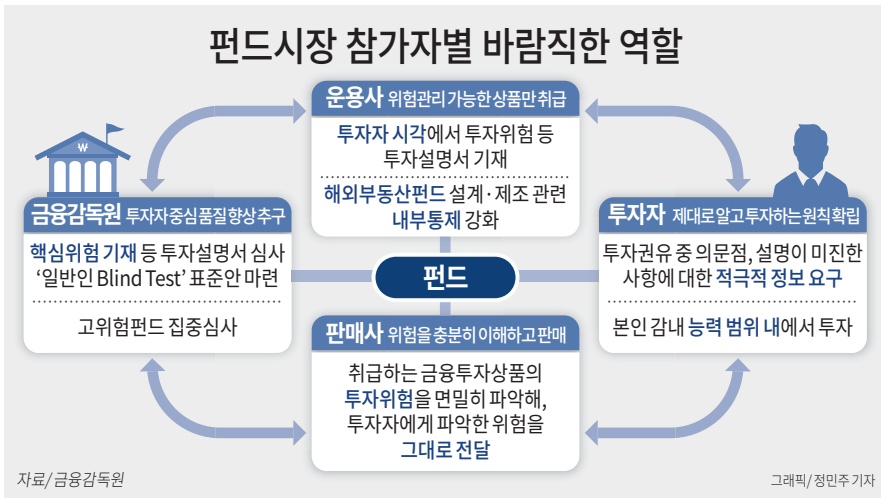
/부산=최빛나 기자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재편…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

금감원, 소비자보호 토론회

고위험 상품설계 기준 전면 손질
사전예방 중심 소비자보호 체계
부동산펀드·ELS 구조적 결함 점검
설계·판매 단계 정보비대칭 해소
넛지형 설명방식 통한 이해도 개선

금융감독원이 해외부동산펀드와 홍콩 H지수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심사·판매 전 과정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부위원회 김승원·김현정 의원과 공동으로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 소비자보호 강화 토론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의 설계 기준과 설명 방식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향을 공개했다. 행사에는 두 의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학계·시민단체·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같은 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광고·수수료 공시 기준을 강화한다고 예고하며 금융·디지털자산 전반에서 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반복된 부동산펀드·ELS 피해를 “개별 영업점 문제가 아닌 구조적 결함”으로 규정

했다. 그는 “설계 단계에서 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판매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되면서 피해가 누적됐다”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어야 금융산업이 지속가능하다. 감독의 무게중심을 사후구제가 아니라 사전예방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의

중심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며 “‘사후구제’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ELS의 대규모 피해를 더는 반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투자자 보호는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첫 발표에서는 해외부동산펀드 사태의 주요 원인이 위험요소의 축소·누락, 투자성향 왜곡, 판매·설계 단계의 정보 비대칭이라는 점이 짚어졌다. 금감원은 판매사가 상품 구조와 위험을 소비자 관점에서 사전에 검증·기록하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 발표에서 박시문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전반의 구조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사태의 핵심은 판매뿐 아니라 설계 단계의 위험 반영 방식”이라며 ▲설계 단계에서 위험 인식·평가·측정 체계 강화 ▲준

법·리스크부서의 독립 설계 검증 ▲소비자 이해를 전제로 한 핵심위험 기재 표준화 ▲운용사·판매사 간 위험 인수인계 체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행동경제학 기반 ‘넛지형 설명 방식’이 소개됐다.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정보 배열과 제시 방식만 바뀌어도 소비자의 판단이 달라진다”며 손익 도표, 비교표, 위험 우선 노출 방식의 시범사업 결과를 설명했다.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위험 인지가 커지고 상품 선택이 분산되는 효과가 확인된 만큼, 금감원은 이 실험 결과를 향후 설명 체계 개편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위험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설계·판매·설명 전 과정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오늘 제기된 의견을 감동정책과 제도 개선에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 IMA 첫 인가

(종합투자계좌)

‘한국판 골드만삭스’ 시동
레버리지300% 운용전략 주목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투자드라이브
한국투자증권, PF·인수금융 확대 속도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종합투자계좌(IMA) 인가를 받으면서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가는 첫발을 내디뎠다. IMA 제도 도입 8년 만에 첫 사업자가 탄생함에 따라 자본시장 내 ‘모험자본 공급 사슬’을 넓히려는 정부 구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자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7월 신청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이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지면 두 회사는 IMA 사업을 공식 시작할 수 있다.

IMA 사업이 활성화되면 정부가 핵심 금융 기조로 추진하는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IMA 사업자는 조달한 고객 예탁금의 최대 25%까지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모험자본 부문에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조성해 부동산에 쏠린 자본을 혁신·벤처 등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

시장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으로 사실상 ‘2파전’ 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미래에셋금융그룹과 한국투자금융그룹은 국내 자본 시장에서 자웅을 겨루는 맞수다.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과 김남주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은 고려대 선후배 사이로 한국투자증권 전신인 옛 동원증권에서 함께 근무했다.

실적이나 자기자본 측면에선 두 증권사 모두 부족함이 없던 평가다.

다만 강점과 전략은 미묘하게 갈린다. 미래에셋증권은 3분기 말 기준 별도 자기자본이 10조4000억원, 발행어음 조달 규모는 8조3000억원으로 아직 한도 여력이 남아 있다. IMA까지 더해 300% 레버리지를 적용하면 최대 22조9000억



한국투자증권

원 규모의 자금 운용이 가능해진다. 글로벌 지분투자, 프리 IPO, 해외 대체투자 등에서 쌓아온 딜 소싱 역량과, 모험자본 카테고리 내 A등급 이하 크레딧·강소기업 VC·신기사 조합 투자 경험을 IMA에 실어 ‘글로벌·모험형 IMA’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한국투자증권 경우는 자기자본은 10조5000억원대지만 발행어음 조달액이 이미 18조7000억원으로 기존 한도(200%)를 거의 소진했다. IMA 인가는 사실상 ‘두 번째 엔진’을 달아준 셈이다. 향후 12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 여력이 생기면서, 그간 강점을 보여온 부동산 PF·인수금융·구조화금융 영역과의 결합을 통해 보다 공세적인 IB 전략을 펼 수 있다.

/허정윤 기자

KB증권, 디지털 자산관리 10조 돌파

AI·UX 혁신으로 고객경험 강화
비대면 중심 자산관리 고도화

KB증권의 디지털 자산관리(WM) 자산이 10조원을 돌파했다.

KB증권은 자사의 디지털 자산관리(WM) 서비스 자산 규모가 2022년 말 3조4000억원에서 올해 하반기 10조원을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3년 만에 약 3배 성장한 수치다.

KB증권은 디지털 마케팅 전담조직 신설 이후, 디지털 채널 중심의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에 주력한 결과로 평가했다. 앞서 2023년 디지털사업그룹 내 비대면 상품 마케팅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투자 분석, 상품 추천 알고리즘 고도화, 모바일 앱 사용자경험(UX)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왔다.

또한 KB증권은 투자 콘텐츠 브랜드 ‘오늘의 콧’을 통해 실시간 시장 분석과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오늘의 콧’은 주식, 채권, 부동산,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며 누적 조회수 1000만회를 돌파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KB증권은 이번 디지털 WM자산 10조원 돌파를 계기로 KB증권의 대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M-able’을 단순 거래 플랫폼을 넘어 고객의 자산 성장과 장기적 투자 여정을 지원하는 ‘투자 동반자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내년 2월 예정된 차세대 정보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고객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와 실시간 투자 정보 제공 기능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이흥구 KB증권 대표이사는 “디지털 자산관리는 쉽고 친근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고객 자산 상황에 맞는 투자 정보와 콘텐츠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준비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와 혁신을 통해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 경험을 한층 더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디지털 거래 환경 개선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KB증권은 모바일 앱 내 금융상품 가입, 자산 조회, 상담 등 전 과정을 간소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Prime PB’와 연계한 온라인 프리미엄 상담 서비스를 통해 대면 수준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미래에셋증권, ASOCIO 어워드 수상

GPU인프라 구축 성과 인정

미래에셋증권은 아시아대양주정보산업기구(ASOCIO)가 주관하는 ‘ASOCIO 어워드 2025’에서 ‘AI 서비스 프로바이더 어워드’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ASOCIO는 아시아·대양주 24개국 정보통신기술(ICT) 협회가 국가 간 교류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1984년 설립한 국제 민간 기구다.

AI서비스프로바이더 어워드는 인공지능(AI)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선도적 AI 기술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고도화하고 고객에게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시장 기여도를 높인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특히 “그래픽 처리 장치(GPU) 기반 AI 인프라를 구축하며 디지털 전환(DX)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클라이언트 퍼스트’(고객 우선) 철학을 바탕으로 한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금융시장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허정윤 기자

토권증권 도입안, 24일 법안소위서 첫 심사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 병행

국회에 계류 중인 토권증권(STO) 법안들이 이달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13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부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토권증권 도입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인 토권증권도

입 법안은 5건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민병덕·조승래·강준현 의원이 차례로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의힘에서도 김재섭·김상훈 의원이 제안했다.

토권증권이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형태 증권이다. 토권증권이라는 그릇이 생기면 기존에 전자증권만으로 담기 어려웠던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과

관리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화를 위해서는 토권증권을 정의하고 증권과 동일한 제도가 적용되도록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두가지를 개정해야 한다.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등 다른 디지털 자산 정책에서는 정당 간 의견 차이가 있지만 토권증권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치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주요 3당 모두 토권증권 법제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신하은 기자

“외투, 韓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 매력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할 것”

산업부,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

에쓰오일 대표 ‘금탑산업훈장’ 등 외국인 투자유공자 40명에 표창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25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한 기업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그간 외국인 투자가 한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외투기업이 꾸준한 한국 투자를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가겠다” 밝혔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김 장관을 비롯해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 회장,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 외교사절단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는 이날 총 40명의 외국인 투자유공자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기업인 에쓰-오일(S-OIL)의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받았고, 온세미컨덕터코리아 노성 전무는 실리콘카바이드(SiC) 반도체 양산 성공과 대규모 투자 확대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산업포장에는 도쿄일렉트론코리아 이해진 부사장, 안랩 김기인 부사장, 한국유미코아배터리머터리얼즈 홍권화 이사, 에드워드코리아 임우식 사장,

린텍코리아 조병천 이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표창은 엘에치이 최용수 전무, 에어프로덕츠코리아 김형주 이사, 동신포리마 박영대 대표, 한국사이언스코 서영훈 대표, 충청남도에 돌아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외국인 투자 성공사례 공유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하의 외국인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패널토의도 진행됐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ESG 경영 사례와 외투기업의 국내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외투기업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첨단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정책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2일 저녁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해 김장재료의 품질·가격 등을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김장재료 수급 500억 투입 가용물량 분산 안정적 공급

송미령 농식품장관, 가락시장 방문 배추·무 등 재료 출하상황 등 살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2일 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김장재료의 출하 및 가격동향을 점검했다. 또 관계자들을 만나 철저한 작황 관리를 강조하고, 산지와 소비지 간 조정을 통한 원활한 물량 공급 협조를 당부했다.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현장에서 배추와 무, 대파 등 주요 김장재료의 출하 상황과 도매가격 등을 살폈다. 특히,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을 만난 자리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올해 김장재료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이상 낮은 수준이고, 주 재료인 배추·무 재배면적이 증가해 김장성수기(11월 중순~12월 상순) 기간 공급 차질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가을철 잦은 비로 작황이 일

부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송 장관은 기존 하락 폭이 커질 경우 출하가 지연되는 등 수급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며, 출하자들에게 작황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매법인에는 산지 작황 및 소비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김장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배추와 무 4만7000톤(t) 등 정부 가용물량을 분산 공급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원을 투입해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송 장관은 또 (가칭) ‘출하가격보전제’ 도입 준비상황도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을 지시했다. 이는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출하자의 최소수취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로, 내년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도 언급했다. 이 제도는 도매 단계에서의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 예약형 정가수의 거래를 확대(2024년 5.4%→2027년 10%) 하는 개선책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협중앙회 ‘인적쇄신’… 신뢰회복 3대전략 마련

대표와 임원·집행간부 절반 이상 교체 5년간 생산적·포용금융에 108조 투입

농협중앙회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는 며칠 전 발표된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직 및 임직원 전체가 뼈를 깎는 수준의 혁신을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13일 농협에 따르면 개혁안은 ▲신뢰받는 농협중앙회 ▲깨끗하고 청렴한 농축협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지역 농축협 부정부패 제로화’, ‘농업인 부채 탕감’ 등 농협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구체

적 실행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중앙회 운영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꾼다. 대표와 임원, 집행간부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더불어 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이사에게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책무 구조도를 도입해 중대한 비위 행위 발생 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불공정 이슈의 차단을 위해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지역 농축협의 횡령 등 부정부패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방

안을 시행한다. 사건·사고가 발생한 농축협에 대해 중앙회 지원을 전면 중단하며, 엄격한 비용집행 가이드라인과 위반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관리기구와 신고센터를 즉시 운영하고, 부정선거 행위가 적발되면 신속히 조사할 예정이다.

공익적 역할도 강화한다. 농업인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해 신용 회복을 돕고 혁신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생산적·포용금융에 향후 5년간 108조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개혁 과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요 부서장이 참여하는 ‘범농협 혁신TF’도 발족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국가스공사 직원들과 대구 동구청, 새마을협의회·부녀회, 유관 봉사단체 등 500여 명이 지난 12일 배추 3400포기 분량의 김장김치를 담고 있다. /가스공사

가스공, 사랑의 김치 3400포기 담가

취약계층 등 1000곳에 전달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2일 대구지역 취약계층에게 겨울철 온기 넘치는 식탁을 선물하고자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인준영 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대구 동구청, 새마을협의회·부녀회, 유관 봉사단체 등 500

여 명이 참여해 배추 3400포기 분량의 김장김치를 담갔다. 이날 담긴 김장김치는 대구 동구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와 장애인·보훈단체 등 1000여 곳에 전달됐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 행사는 민·관·공이 함께 지역 공동체의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확산시키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혁신 아이디어 공모 ‘LX플랫폼사업체’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공지능(AI) 기반 기후·환경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14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디엠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7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공모전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시상한다. 공모전은 환경행정의 품질 향상과 행정업무 자동화 등 수요자 중심의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한 도시하천 수질환경 예측·해결 모델(LX플랫폼사업체)’이 차지했다. 수질 측정망과 사물인터넷 센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녹조나 악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모델로 지자체가 선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위성·수문 데이터 융합 인공지능 기반 녹조 선형 예측 및 최적 대응 시스템(김이런 씨)’이 받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이차전지 등 국제표준 25종 개발 나서

국표원, K-배터리 표준화 포럼

정부가 2030년까지 이차전지를 포함해 총 25종의 국제표준 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원주 오코밸리 리조트에서 ‘K-배터리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고, 이차전지 분야 제조강국, 차세대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순환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이차전지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르면 상용, 차세대 및 사용 후 이차전지 분야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2030년까지 국제표준 9종 개발, 국가표준 10종 및 단체표준 6종을 제정한다.

우선 ‘상용 이차전지’와 관련해 셀 역폭주 발생 가스 분석방법, 상태 정보 분석방법, 배터리 핵심소재인 양극재·음극재의 성분 분석방법 등에 대한 표준을 제정한다.

이차전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선박·드론·로봇·건설기계용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도 신규 제정할 계획이다.

향후 주력 제품이 될 ‘차세대 이차전지’의 경우,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 지원을 위해 전고체전지의 고체 전해질 분석방법, 리튬황전지와 소듐(Na)이온전지의 셀 성능·안전 요구사항 등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올해 쌀 생산량 354만t… 역대 2번째 적어

데이터처, 생산량 4년 연속 감소세

올해 쌀 생산량이 354만 톤(t)으로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하며 역대 2번째로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벼 재배면적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작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3일 발표한 ‘2025년 쌀 재배면적 및 농작물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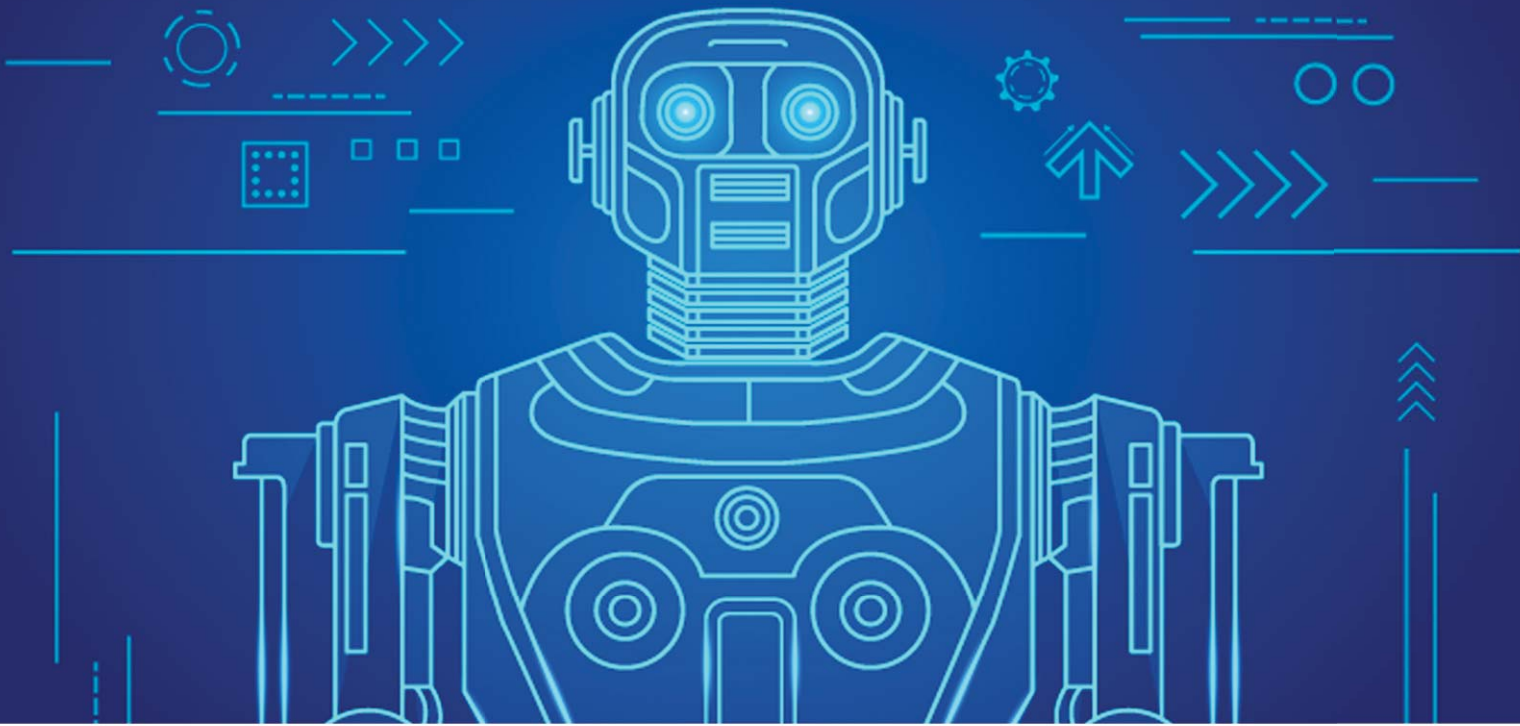
353만9000t으로 작년보다 1.3% 감소했다. 쌀 생산량은 4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이란 지난 2020년(350만7000t)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가장 큰 감소 요인은 재배면적 축소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67만8000헥타르(ha)로 지난해보다 2.9% 줄면서 통계 작성 이후 최소를 보였다. 이는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정부의 적정생산 정책 영향으로 분석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지형

| 일시 | 2025년 11월 19일(수) 오후2시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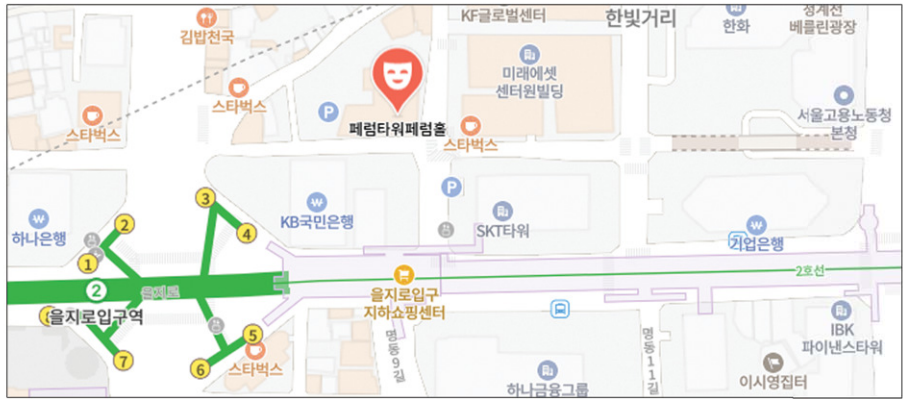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주 제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지형
일 시 2025년 11월 19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뉴테크놀로지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오시는 길

페럼타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도보 3분)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0	〈축사〉 조풍연 한국 SW-ICT 총연합회장(메타필드 대표) 유태준 마음AI 대표 겸 한국피지컬AI협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14:40	유태준 마음AI 대표 겸 한국피지컬AI협회장 : 피지컬 AI 국가 대전환 전략
강연	14:40~15:10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 : 인류역사상 첫 무인화혁명, Physical AI
	15:10~15:40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 : AI의 모든것: AI 교육부터 AI 클라우드 사례
	15:40~16:10	양수열 클라우드웍스 CTO : 피지컬AI 시대, VLA 모델 발전을 위한 데이터 현황과 과제
	16:10~16:40	김하늘 에이인텔리전스 이사 : Agent 시대 AI 보안의 표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국어·수학, 공교육 중심·킬러문항 배제… 지난해 수준 평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지문 등 EBS 연계 체감 높아
수학, 공통과목 중심 변별력 문항 배제
EBS교사단 “학교 수업이 핵심”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어와 수학 모두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난이도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공통과목과 일부 문항을 중심으로 변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출제본부와 EBS 현장교사 평가단은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핵심 개념을 충실히 반영한 시험이었다”고 평가했고, 입시업계 역시 “킬러문항을 배제한 가운데 상위권을 변별하려는 출제 흐름이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 국어, 독서영역 초반부 난도 높아

국어영역은 최근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쉽게 출제됐으나, 독서 영역 초반부에서 체감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EBS 현장교사 평가단은 “지문 속 핵심 개념을 명확히 제시해 학교 교육만으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문항의 명확성을 높여 선지 판단이 가능하도록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종로학원 대입 수능 분석 상황에서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와 강사들이 국어 영역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뉴시스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독서에서는 정보 간 관계를 종합하고 상황에 적용하는 문항이 변별 요소로 작용했으며, 과학·기술 지문 역시 EBS 연계 제재를 활용했지만 학생들에게는 난도가 높았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학에서는 제시된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비교·분석하는 전형적 평가 방식이 유지됐다. 고전소설·현대시·고전시가 가운데 3편이 EBS 연계 작품으로 출제됐으며, 고전소설의 경우 연계교재와 동

일 장면이 등장해 체감 연계도가 높았다는 반응이다.

선택과목에서는 화법·작문에서 담화 간 연결을 파악하는 문항이, 언어·매체에서는 문자·소리의 관계를 다룬 중세국어 기반 문항이 변별 기능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되 9월 모평보다는 쉬웠다”라며 “특히 독서 1~17번이 수험생에게 가장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문학과 일부 독서 지문에서 EBS 연계 체감이 높았으며 전체 난도는 작년과 9월 모평의 중간 정도”라고 평가했다.

◆수학, 공통과목서 변별성 강화

수학영역 역시 공교육 중심 출제 기조가 유지되면서도 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항이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배치됐다.

공통과목 수학 I에서는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에서, 수학 II에서는 극한·미분·적분 단원에서 핵심 문항이 출제되었다. 특히 ▲14번(사인·코사인 법칙) ▲22번(지수·로그 그래프) ▲21번(극한 성질 기반 함수 추론)이 높은 변별력을 보였다는 평가다.

선택과목에서도 영역별로 난이도 차이를 보이며 상위권을 가르는 문항이 출제됐다. 확률과 통계에서는 조건분류와 중복조합을 결합한 28번·30번, 미적분에서는 음함수 미분·치환적분·역함수 개념을 활용한 28번·30번, 기하에서는 원과 벡터 내적 성질을 활용한 29번·30번이 대표적인 고난도 문항으로 꼽혔다. 전체 연계율은 50%로 유지됐으며, EBS 연계 교재의 개념·원리를 활용하도록 구성됐다는 점에서 공교육 수업 기반 준비가 유효했다는 설명이다.

임성호 대표는 “수학은 9월 모평보다 공통과목 기준으로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주관식 4점인 공통과목 21번·22번과 선택과목 30번 문항들이 수험생 체감 난도를 끌어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진 소장은 “공통과목 내 문항 난이도 격차가 있어 풀이 시간 관리가 관건이었을 것”이라며 “전년도 수능보다 어렵게 느낀 학생이 적지 않았고, 6월·9월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이 수능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종합적으로 2026학년도 수능은 국어와 수학 모두 지난해 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교육과정 기반·공교육 중심이라는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공통과목과 고난도 문항을 중심으로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해 시험으로서의 기능은 유지했다는 평가다.

EBS 교사단은 “결국 개념과 원리에 충실한 학교 수업이 핵심이며, 수능 준비 역시 교육과정 중심 학습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난 시험”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앞줄 가운데), 이지형 서울투자진흥재단 이사장(앞줄 오른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이지형 이사장 “서울, 글로벌 투자 허브 육성”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오세훈 서울시장 등 100여명 참여
市, 재단 중심 글로벌 투자유치 방침

서울이 글로벌 자본이 모이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급변하는 투자환경 속에서 서울투자진흥재단이 공식 출범식을 열고, 서울의 투자유치를 이끌 공식 행보에 돌입했다.

서울시와 (재)서울투자진흥재단은 13일 오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재단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해외 대사관, 해외 투자청 및 상공회의소 등 유관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시가 심화되는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 지난달 21일 공식 설립 등기를 마쳤다.

재단은 ▲서울형 특화 투자유치 전략

수립 ▲기업 맞춤형 지원 및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기업 유치 ▲부지개발 마케팅 강화 및 금융중심지 활성화 등을 통해 서울의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이날 알파 라우 홍콩투자청장, 제임스 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등 해외 유관기관에서 재단 출범과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지형 서울투자진흥재단 이사장은 출범식에서 재단의 첫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서울을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투자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핀테크·AI·바이오·로봇 등 서울의 전략산업별로 투자유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정비하겠다”라며 “서울의 지역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서울의 핵심 전략산업의 앵커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서울투자진흥재단과 미국, 프랑스, 일본, 룩셈부르크 등 4개국 주요 투자청 간 업무협약(MOU)

이 체결됐다. 협약은 ▲투자 네트워크 축진 ▲컨퍼런스 등 공동 프로그램 진행 ▲기업 육성 정책 및 우수사례 등 정보 교환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향후 재단은 각국 투자청과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글로벌 공동 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재단 출범을 계기로 투자유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외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단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자 대상 찾아가는 IR, 글로벌 투자 로드쇼, 1대1 상담회 등 실질적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첫 상담부터 정착과 확장까지 투자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기업이 모이고 사람과 자본, 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투자 허브 도시’ 서울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 2년 반만에 부채 6조 ↑

경기도의회, 도 재정 악영향 우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공공성’을 내세운 각종 개발사업이 빚으로 이어지며, 경기도 재정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GH의 총 부채는 2022년 9조 9,877억 원에서 2025년 6월 기준 15조 9,850억 원으로 치솟았다. 불과 2년 반 만에 약 6조 원이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GH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부채가 단기간에 폭증하면서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공공성 명분 아래 이뤄진 무리한 차입이 결국 도 재정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GH는 2021년 이후 50건, 총 7조 원 규모의 공모채를 발행했다. 금리 상승기임에도 부채를 확대하는 행태에 대해 박의

원은 “사업성 검증 없이 공공개발을 명분으로 한 채권 발행은 무책임한 재정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3기 신도시 사업이 GH 부채 폭증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초기 토지보상비와 기반시설 투자비는 막대하지만, 분양수익은 수년 뒤에야 발생한다. 이로 인해 생긴 ‘정책성 차입’이 도 재정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GH는 경기도가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 부채가 과다해지면 경기도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사실상 도민이 빚을 함께 떠안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GH 사장은 “도시개발·주택개발을 병행하는 공사의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중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재편

한강로 동측 등 6개 구역 분할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역에서 한강대교까지 이어지는 한강대로 일대이자 국가 상징 거점으로 구상 중인 용산 광역 중심에 지정된 대규모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

1995년 처음 구역이 지정된 이래 330만~350만㎡ 규모로 관리돼 온 서울시 기존 시가지 최대 규모 지구 단위 계획 구

역이다.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나치게 큰 규모 탓에 계획 정비에 오랜 시간이 걸려 주민 불편을 유발했다. 이번 계획 결정에 따라 6개 구역으로 분할돼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는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6개 구역은 ▲서울역 일대(71만㎡) ▲남영역 일대(36만㎡) ▲삼각지역 일대(73만㎡) ▲한강로 동측(40만㎡) ▲용산역 일대(105만㎡) ▲용산전자상가(12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

/이현진 기자

현지 소비자와 소통… K-뷰티, 해외 오프라인 전략 승부수

에이피알 美 뉴욕서 열흘간 팝업
1.2만명 방문 “브랜드 위상 확인”

아모레퍼시픽 美·中·日 시장 진입
백화점 등 유통망 통해 맞춤전략

K뷰티 성장 축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체험 중심 매장, 럭셔리 백화점 입점 등 현지 소비자와의 직접 소통이 승부수가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오프라인 중심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는 추세다.

13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K뷰티 신형 강자 에이피알은 해외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지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한 대규모 마케팅을 본격화했다.

에이피알은 지난 10월 24일~11월 2일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메디큐브’ 팝업 행사를 열고 스킨케어 제품과 뷰티 디바이스의 조합을 선보였다.

‘광채 모드를 켜다’라는 주제로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 프로’의 4가지 기능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복고풍의 아케이드 게임을 설치하고 이를 즐기는 과정에서 부스터 프로의 원리와 효능을 학습하도록 기획했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약 1만 2000명이 넘는 현지 소비자들이 다녀간 것으



‘메디큐브’ 미국 뉴욕 팝업 행사장 전경.

/에이피알

로 집계됐다. 또 미국 유명 모델인 켈달 제너가 방문해 화제를 모았다. 평소에도 에이피알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행사장에서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를 직접 경험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와 함께 에이피알은 뉴욕 타임스퀘어부터 지하철까지 도심 곳곳으로 옥외 광고를 확장했다.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 5곳, 지하철 주요 노선 총 500여 구역에서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광고는 광채 나는 피부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담아 브랜드 가치를 각인시킨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이번 뉴욕 팝업 행사를 통해 미국 내 달라진 브랜드 위

상을 확인했다”며 “브랜드 인지도가 확실히 높아지고 있어 현지 소비자와 다양하게 소통하며 브랜드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표 뷰티 대기업 아모레퍼시픽도 글로벌 오프라인 매장 입점을 늘린다. 특히 설화수, 헤라 등 럭셔리 브랜드를 앞세워 백화점으로 진출하면서 K뷰티 고급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올해 들어, 미국에서 설화수가 메이시스 백화점을 통해 럭셔리 뷰티 시장에 진입했다. 메이시스 백화점은 미국 전역에 420여 개 지점을 운영해 설화수는 향후 입점 매장을 순차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헤라가 주요 백화

점인 한큐, 미츠코시 등에서 해당 매장 한정판 제품을 출시하는 등 맞춤형 전략을 펼쳤다.

중국 본토, 홍콩, 대만 등 중화권 매출 성장에서도 오프라인 유통망 개선이 주효했다. 올해 3분기 중국 신형 멀티브랜드숍 ‘컬러리스트’에서 스킨케어 브랜드 라네즈가 신규 진출해 워터슬리핑마스크, 립슬리핑마스크, 립글로이밤 등 글로벌 히트 상품의 입지를 넓혔다.

중소 뷰티 기업 에이블씨엔씨도 미국 오프라인 시장에서 실적 반등 기반을 다진다.

에이블씨엔씨는 현재 미국 대형 온라인 채널에서는 수익성을 입증했다. 올해 3분기 기준, 미국 틱톡샵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0배, 아마존 매출은 2배 증가했다. 지난 5일(현지 시간)에는 미국 틱톡샵 내 K뷰티 브랜드 중 매출 3위에 올랐다.

에이블씨엔씨는 올해 3분기 실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한 매출 595억원, 영업손실 10억원을 냈다. 다만 같은 기간 미국 매출은 1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9% 커지면서 미국법인은 설립 5년 만에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보졸레 누보.

/롯데칠성음료

롯데칠성음료

‘보졸레 누보’ 3종 선택

롯데칠성음료가 2025년산 햏와인 ‘보졸레 누보(Beaujolais Nouveau)’ 3종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보졸레 누보’는 프랑스 보졸레 지역을 대표하는 품종인 ‘가메(Gamay)’로 만든 레드 와인 3종으로 조르쥬 뒤비프 보졸레 빌라주 누보 2종과 조르쥬 뒤비프 보졸레 누보다.

‘보졸레 누보’는 프랑스 보졸레 지방에서 생산되는 햏와인으로 매년 9월 초에 수확한 햏포도를 4~6주간 숙성해 11월 세 번째 목요일(올해의 경우 11월 20일)에 출시한다. 일반적인 레드 와인과 달리 가벼운 탄닌의 느낌과 풍부한 과일 향이 특징인 와인이다.

특히 롯데칠성음료가 수입하는 ‘조르쥬 뒤비프’사의 ‘보졸레 누보’는 프랑스의 보졸레 지역에서만 소비되던 보졸레 누보를 ‘그 해에 갓 생산된 와인을 마신다’는 가치를 담아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보졸레 누보의 선구자 ‘조르쥬 뒤비프’가 만든 대표적인 ‘보졸레 누보’다.

/신원선 기자

APEC 공식협찬 천년한우 등 신선 제철먹거리 반값 할인

이마트, 오늘부터 사흘간 행사
‘호랑이 유자 생막걸리’ 등 준비

이마트가 경주 천년한우부터 생삼치, 방어무침회 등 전국 각지의 신선한 제철 먹거리를 최대 50% 할인해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최근 APEC 정상회의 공식 협찬사로 선정된 경주축협이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천년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한다. 이마트는 천년한우 1++(9)등심, 1+등심, 1+국거리불고기 등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할인된 가격에 준비했다.

이와 더불어 전남 고흥산 유자를 사용한 배례정도가의 호랑이 유자 생막걸리를 판매하며, 창고형 할인점 트레

ידטרס에서는 경주 황리단길의 명물 경주 삼원빵을 선보인다.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겨울 제철 수산물과 간식도 알뜰한 가격에 내세운다.

경상남도 사천시와 함께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열고 생삼치와 생병어를 최대 30% 할인한다. 해양수산부와 함께하는 특가 행사에서는 남해안 이력제 생굴과 남해안 홍가리비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제철 방어무침회에 채소를 곁들인 방어무침회는 신세계포인트 적립 및 행사카드 결제 시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겨울철 국물요리 식재료인 생대구와 사브사브용 모듬채소, 버섯채소 모듬도 할인가에 선보인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BGF리테일 홍콩국 부회장(가운데 왼쪽)과 CU Hawaii Robert Kurisu(로버트 쿠리수, 가운데 오른쪽) 대표가 CU 하와이 1호점 앞에서 열린 오픈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BGF리테일

CU 美 하와이 1호점 ‘다운타운점’ 오픈

호놀룰루 중심상업지구 70평 규모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이 지난 12일 미국 하와이 1호점인 CU 다운타운점을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와이 1호점인 CU 다운타운점은 약 70평 규모로 호놀룰루시 중심상업 지구에 위치해 있다. 매장 인테리어, 유니폼, 상품 패키지 등 점포 전반에 하와이 예술가 Sig Zane이 디자인한 하와이안 아트 패턴을 적용해 현지 감성

과의 조화를 강조했다.

해당 점포는 K-food meets Aloha 콘셉트로 K-편의점의 특색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PBICK 존을 마련해 김부각 등 K-푸드와 생활 밀착형 상품을 다채롭게 구성했으며, 아이스 드링크 델라페 파우치 음료도 상시 판매한다. 또한 연세우유 크림빵, 노트드 도넛, 피마원 하이볼 등 CU의 히트상품과 하와이 CU에서만 판매하는 CU프렌즈 굿즈 존도 운영한다. /손종욱 기자

키즈위한 식품 브랜드 ‘푸키루키’ 선택

CJ제일제당, 냉동국물·즉석밥 등

CJ제일제당이 키즈 전문 식품 브랜드 ‘푸키루키(PookieRookie)’를 론칭했다고 13일 밝혔다.

‘푸키루키’는 햏달 형제 캐릭터인 ‘푸키’와 ‘루키’의 이름으로, 발음하기 쉬운 어감을 살리면서 귀여운 어린이를 떠올릴 수 있도록 했다. CJ제일제당은 바다 동물 캐릭터들을 활용해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감과 동시에 식

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했다.

CJ제일제당은 처음으로 선보이는 제품군은 냉동국물요리·즉석밥으로, 국내산 재료를 활용해 자극적이지 않은 건 강한 맛을 구현했다. 국물요리 제품으로는 ‘푸키루키 한우로 만든 건강한 사골곰탕’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전라남도 축협 8곳이 모여 만든 무항생제 한우 브랜드 ‘녹색한우’의 한우만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쿠팡 “유럽 고급조명, 로켓배송으로 받아요”

조명 카테고리 론칭

쿠팡이 프리미엄 브랜드 전용관에 조명 카테고리를 새롭게 론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프리미엄 조명관은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국내 등 다양한 국가의 고급 조명 브랜드를 한데 모아 구성됐다. 고객들은 쿠팡 앱을 통

해 상품을 간편하게 둘러보고, 로켓배송으로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프리미엄 조명관은 시그니처, 디스커버 브랜드와 아이코닉 아이템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장·단스탠드, 펜던트, 포터블 조명 등 카테고리별로 나눠 쇼핑 편의성을 높였으며, 전구 컬러별 상품도 함께 구성해 공간 분위기에 맞는 제품 선택이 가능하다. /손종욱 기자

하이트진로

‘테라 크리스마스 에디션’

하이트진로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테라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1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테라 출시 후 시즌마다 선보이며 사랑받아온 테라의 한정판 시리즈가 올해는 따뜻한 감성과 귀여운 매력을 더한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번에 선보이는 ‘테라 크리스마스 에디션’은 테라 특유의 청정한 브랜드 컬러 바탕으로 노는 내리는 크리스마스 풍경과 맥주잔을 들고 있는 산타캐릭터를 더해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완성했다. 특히, 테라의 상징인 ‘리얼탄산’은 동그란 눈송이 형태로 형상화해, 청량감도 놓치지 않았다.

출시를 기념해 하이트진로는 유흥 및 가정 채널에서 ‘Happy Christmas with TERRA’ 캠페인을 진행한다. 크리스마스 시즌 분위기에 맞춘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연말 시장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유흥채널에서는 월트리(wall tree) 포스터와 크리스마스 컬러 머리끈 증정이벤트로 현장 분위기를 높이고, 가정채널에서는 단독 매대 및 LED 디스플레이와 함께 ‘테라 크리스마스 변온잔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무신사, 中·日 등 해외사업 확대 ‘10조 패션 기업’ IPO 판 키운다

팝업스토어 중심 소비자 접점 확대
내년 기업공개 예정… 10조 전망
글로벌 성장성 등 가치입증 관건

최근 무신사가 중국, 일본 등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 다가올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글로벌 패션 기업으로서 존재감을 각인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무신사가 지난 10월 도쿄 시부야에서 연 팝업 스토어엔 8만2000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뤘다. 팝업 행사 이후 10월 무신사글로벌스토어의 일본지역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배 이상 급증했다. 일본 현지에선 로우클래식 Lc, 론론, 유희, 크랭크, 페넥 등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를 인큐베이팅하며 10월 한 달 거래액에 세 자릿수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였다.

무신사는 최근 일본 법인 무신사 재팬(MUSINSA JAPAN) 신임 대표로 이케다 마이크(Ikeda Mike)씨를 선임했다. 이케다 대표는 닥터마틴 제팬 대표 등을 역임한 25년 경력의 현지 전문가다. 팝업 스토어 중심의 단기전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현지화 기반을 다지겠다는 포석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 성장세다. 지난 8월 안타스포츠와 합작법인 ‘무신사 차이나’를 세우고, 엔하이픈



무신사가 올해 도쿄에서 진행한 ‘무신사 도쿄 팝업스토어 2025’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무신사

‘성훈’을 앰배서더로 발탁했다. 지난달 27일 티몰에서 진행한 ‘동관(같은 스타일)’ 캠페인은 1시간 만에 거래액 5억원을 돌파했다

무신사 스탠다드 역시 티몰 오픈 2주 만에 거래액 5억원을 넘어서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음달에는 상하이 화이하이루에 첫 해외 오프라인 매장을 열며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

무신사의 전략은 단순 상품 판매에 그치지 않는다. K-패션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 허브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 시장 진출의 큰 장벽으로 꼽히는 ‘GB인증’과 상표권 등록 등 복잡한 규제 대응을 FITI시험연구원 등과 협력해 지원한다. 현지 왕홍(중국 인플루언서)과 협업하는 라이브 커머스도 예고하며 K-브랜드의 현지 안착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무신사의 이 같은 광폭 행보는 박준모 대표가 공언한 ‘5년 내 글로벌 거래액 3조원’ 목표와 맞닿아 있다. 내수 1위를 넘어 K-패션 브랜드를 아우르는 글로벌 패션 기업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기업가치 10조원이 가능할 지에 대해선 현실성이 지적된다. 10조원의 기업가치는 지난해 순이익(698억원) 기준 주가수익비율(PER) 140배를 훌쩍 넘는다.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긴 어렵지만, 국내 패션·의류 상장사의 평균 PER이 5배에서 10배 수준임을 감안하면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결국 팝업스토어를 통한 이벤트성 성과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증명하는 것이 10조 몸값을 설득할 열쇠라는 전망이 나온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3종’ 유럽 처방 1위 (렘시마·유플라이마·베그젤마)

유플라이마 점유율 26%… 첫 처방 1위
처방실적 기반 주력제품 입지 강화 추세

셀트리온이 글로벌 핵심 제약 시장인 유럽에서 처방 실적을 기반으로 주력 제품 입지를 확립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유럽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부터 항암제까지 자사 대표 바이오시밀러 3종이 처방 1위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유럽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렘시마IV(정맥주사제)’와 ‘렘시마SC(피하주사제)’의 점유

율은 69% 수준이다. 유럽 주요 5개국인 영국, 스페인 등에서는 각각 87%, 80%에 달하는 높은 처방량이 나타났다.

‘렘시마SC’ 단독으로도 프랑스 34%, 독일 29%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다른 주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는 유럽에서 26%의 점유율로 출시 이후 처음 처방 1위에 올라섰다.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는 영국 55%, 프랑스 34% 등 주요국 성과를 바탕으로 유럽에서 2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처방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 ‘허쥬마’와 혈

액암 치료제 ‘트룩시마’ 처방도 이어지고 있다. 각각 32%, 30%의 점유율로 선두권에 있다.

셀트리온은 이러한 성과에 대해 올해 초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입찰 수주가 이뤄진 후 제품 처방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지면서 지표에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셀트리온이 독자 구축한 직접판매 체제를 통해 현지 병원, 약국 등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유통망을 확대하는 등의 판매 전략이 시장 점유율 상승에 주효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광동제약, 박상영 경영총괄 사장 선임

임원 인사단행… 지속가능경영 방침

광동제약은 박상영 부사장(사진)을 경영총괄 사장으로 승진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배기룡 상무이사를 전무이사로 승진시키고, 정대석 인사기획부문장을 상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이번 인사는 안정적 경영기반을 바탕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주주 가치 및 대외 신인도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된다. 특히 연구개발(R&D)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확대와 인적자원 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직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영 사장은 경영총괄을 맡아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활동을 이끌게 된다. 박 사장은 그동안 최고안전환경책임자



(CSEO) 및 커뮤니케이션실장을 역임해 언론, ESG, 법무, 감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안전환경 관리와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을 강화해왔다. 앞으로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축과 함께 경영 안정성 확보를 통해 회사의 장기 성장 기반을 다지게 된다.

배기룡 전무이사는 의약연구개발본부장으로서 R&D 혁신을 가속화하며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지속확대해 나간다.

정대석 상무이사는 인사기획부문장으로서 처음 임원에 선임됐으며, 인사 전략 총괄 책임자로서 조직 역량 강화와 인적자원 관리 체계 고도화를 이끌게 된다.

/이세경 기자 seille@

hy, 프로바이오틱스 등 원료 B2B 사업 호조

누적 판매량 50t 돌파… 매출 150억

hy는 원료 B2B(기업 간 거래) 사업 누적 판매량이 50t을 넘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판매량은 18t으로 사업 시작 이후 가장 많다. 매출액 또한 약 15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9% 증가했다. 35억 원의 실적을 올린 첫해보다 네 배 높은 수준이다.

사업 시작에 앞서 B2B 전담팀을 꾸린 hy는 2021년, 전문 브랜드 ‘hyLabs’를 론칭하며 시장에 진출했다. 프로바이오틱스, 천연물 연구부터 대량 생산,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국내 유일 식품업체라는 점을 내세웠다.

특허와 논문으로 인정받은 소재 기술력과 과학성도 영향을 미쳤다. 2025년 기준 특허 124건을 보유 중이다. 국내외에 등록된 논문도 150건이 넘는다.

대표 소재로는 식약처 인정 개별인정형 원료인 ‘제지방 감소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와 ‘피부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으며 숙취해소, 관절건강, 발효홍삼, 발효녹용 등 기능성을 확인한 천연물 원료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양준호 hy 연구기획팀장은 “기능성과 과학성을 겸비한 원료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 “슈퍼 마리오와 모험 떠나세요”

닌텐도와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

롯데가 5개 계열사와 함께 닌텐도 주식회사의 ‘슈퍼 마리오’ 대규모 협업을 개최한다.

롯데는 이달 19일부터 2026년 1월 11일까지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닌텐도 주식회사와 대형 오프라인 행사 조이풀홀리데이인 롯데월드몰을 국내 최초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닌텐도의 공식 팝업스토어인 닌텐도 팝업스토어 인 서울을 선

보인다. 롯데월드몰 1층 아트rium 100 평 규모의 스토어에서 일본 닌텐도 직영 공식 상품과 슈퍼 마리오, 동물의 숲 등 인기 지식재산권(IP) 상품을 국내 단독·선공개로 만나볼 수 있다.

롯데GRS는 전국 롯데리아 매장에서 슈퍼 마리오 MD 출시를 기획 중이며, 엔젤리너스 잠실 롯데월드몰 B1 매장은 슈퍼 마리오 포토존으로 장식한다. 유니클로는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UTme!와 슈퍼 마리오 오리지널 그래픽 협업 상품을 판매한다.

/손종욱 기자

SK바이오팜-서울바이오허브, 오픈 이노베이션 업무협약

항암 분야 등 바이오기업 발굴·육성

SK바이오팜은 서울특별시가 조성한 바이오·의료 창업지원 플랫폼 ‘서울바이오허브’와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바이오팜은 국내 바이오·의료 창업 기업과 협업망을 구축하며 상호간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추신경계뿐

아니라 항암, 방사성의약품 등 신규 모달리티 분야에서 차세대 기술수요에 부합하는 유망바이오 창업 기업을 발굴해 육성한다.

SK바이오팜은 심사로 선정한 기업에게 자사의 글로벌 신약 개발 경험을 공유하며 성과 기반 연구 진단 및 연구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 R&D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1년간 서울바이오허브 입주 임대료를 지원한다.

서울바이오허브는 입주 공간 및 연구

인프라를 지원해 안정적인 협업 환경을 조성해 왔다. 기업의 투자유치 및 홍보, 글로벌 진출, 국내외 제약사와의 사업 교류 등 서울바이오허브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서도 우선 혜택을 제공한다.

SK바이오팜과 서울바이오허브는 오는 2026년 2월 창업기업 모집 공고를 게시하고 서면 및 대면 평가를 거쳐 2026년 3월까지 2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전예약

스타벅스 코리아가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공식 앱에서 크리스마스 홀케이크 예약 주문을 진행하고, 주문 고객에게는 할인, 증정품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스타벅스가 올해 준비한 케이크는 매장 픽업 전용 프리미엄 케이크 5종과 온라인 스토어에서 택배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배송 전용 홀케이크 14종 등 총 19종으로 구성됐다.

/신원선 기자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홀케이크. /스타벅스 코리아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정답이 아니면
뭐 또 어때?

나만의 해답을 찾아나설 시간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삼성, ‘나눔키오스크’ 10주년 행사… 기부문화 확산 기여

‘2025 나눔의 날’ 행사 열어
‘일상의 기부’ 10년간 성과 공유
나눔워크 중 헌혈 캠페인 동참

삼성은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 디지털홀에서 나눔키오스크 10주년을 기념하는 ‘2025 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2015년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임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처음 시작된 나눔키오스크는 사원증을 대강하면 한번에 1000원씩 기부되는 기부 플랫폼이다.

올해 ‘나눔의 날’ 행사는 나눔키오스크를 통해 지난 10년간 임직원들이 참여해 온 ‘일상의 기부’가 만든 성과를 공유하고, 지난 3일부터 2주간 진행된 나눔워크를 결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눔키오스크는 현재 삼성 23개 관계사에서 국내 108대, 해외 43대 등 총 151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누적 기



삼성은 13일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 디지털홀에서 나눔키오스크 10주년을 기념하는 ‘2025 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부금은 112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화귀질환·장애·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3770명에게 전달됐다. 삼성 임직원들은 나눔워크 기간 동안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를 위한 대면봉사 ▲나눔키오스크 기부 ▲헌혈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했다.

참여 임직원 수는 23개 관계사 총 8만 8000여명(국내 기준)에 이른다.

또한 삼성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매일 2명씩 총 20명의 아동을 위한 특별 모금을 진행해 ‘나눔의 날’ 행사에서 협력 NGO들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삼성 임직원들이 나눔워크 기간 나눔키오

스크로 기부한 금액은 총 3억원이다.

삼성 임직원들은 자율적으로 그룹·파트 등 조직 단위로 봉사팀을 결성해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사업장 인근 식목 봉사 ▲유기견 보호소 청소 봉사 ▲국립서울현충원 묘역 환경정화 ▲수원화성행궁 외국인 관광객 안내 ▲청소년 멘토링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전영현 대표이사 등 경영진들도 지난 10일 경기 용인시 장애인표준사업장 ‘희망별숲’을 찾아 장애인들을 위한 쿠키 만들기 봉사에 참여했다. 노태문 DX 부문장 직무대행은 지난 11일 수원사업장에서 SSAFY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봉사에 참여했다.

삼성 임직원들은 나눔워크 기간 중 헌혈 캠페인에도 동참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르노, 그랑 콜레오스 4차 무선 업데이트

르노코리아가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그랑 콜레오스에 대한 4번째 무선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업데이트 대상은 르노코리아가 2024년 7월 14일부터 2025년 10월 14일 사이에 생산한 차량이다. /르노코리아



LG CNS, ‘아소시오 어워드’ 수상

AX 전문기업 LG CNS는 지난 1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아소시오(ASOCIO, 아시아·오세아니아 정보산업기구) 어워드 2025’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LG CNS 디지털AX담당 이승찬 상무(왼쪽 두 번째)가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 CNS

두산에너지빌리티, CP ‘AAA’ 인증 재지정

네 번째 최고등급 재지정 성공
전략물자 관리체계 확인 성과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최고등급인 ‘AAA’ 인증을 재지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

CP 제도는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기업 스스로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산업통상부는 2014년부터 심사를 통해 우수기업을 지정하고 있다. 인증은 A·AA·AAA의 3단계 등급제로 운영되며 지정 후 3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거쳐 인증을 연장해야 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2014년 중공업 업계 최초로 AAA 등급을 획득한 이후 2019년과 2022년에 이어 올해 네 번째 최고등급 재지정에 성공했다. 최고경영자의 준법의지, 전략기술 관리체계 도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산에너지빌리티 본사 전경. /두산에너지빌리티

입, 공급자 판정서 제출 절차 개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재지정에서도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김동철 관리부문장은 “이번 재지정은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전략물자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수출관리 기준을 지속 유지해 글로벌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LIG넥스원, ‘IT서비스 혁신대상’서 수상

국방부 장관 단체상 받아

LIG넥스원은 지난 12일 열린 ‘2025 대한민국 IT서비스 혁신대상’에서 국방부 장관 단체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민국 IT서비스 혁신대상’은 한국IT서비스학회와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이 공동 주최하며, IT서비스 분야에서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단체·개인에게 수여된다. 국방부 장관 단체상은 국방 분야 IT서비스 개발과 사업 활성화, 해외 진출 성과를 평가해 선정한다.

회사 측은 육·해·공 전 영역의 무기체

계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시스템에 융합, 소프트웨어(SW) 기반의 지능화·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수출 성과 등으로 국내 IT서비스 기술과 방산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이 수상 배경으로 꼽혔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과 글로벌 수출은 LIG넥스원의 SW기반 IT서비스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번 수상은 LIG넥스원이 미래 안보환경을 주도하는 첨단 기술 및 IT서비스 혁신 기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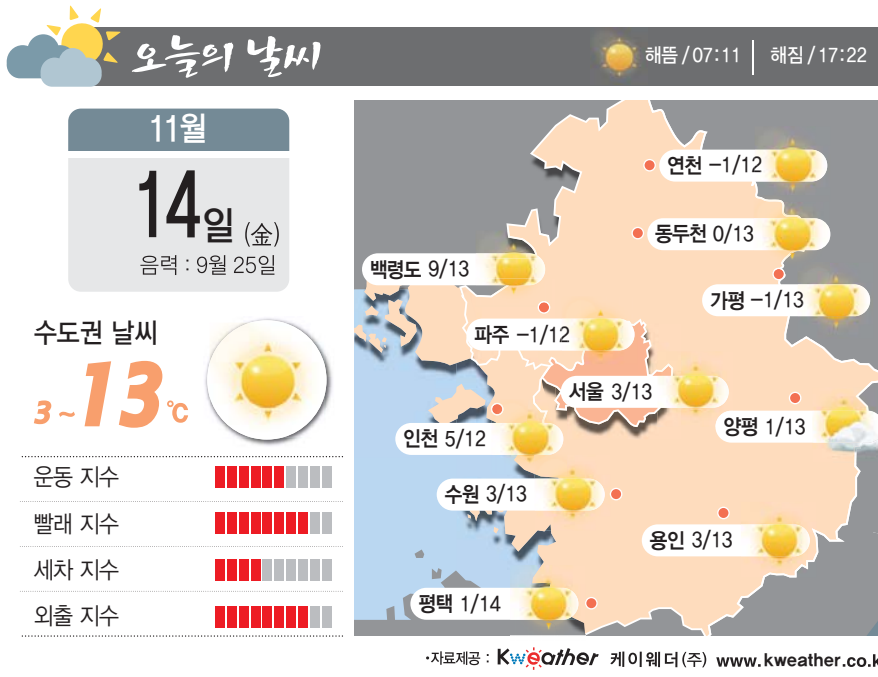
유진홈센터, ‘적십자 바자’ 참여

유진그룹 계열 유진홈센터의 집수리 전문 브랜드 에이스하드웨어(Ace Hardware)가 ‘2025 적십자 바자’에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13일 유진홈센터 임직원들은 현장에서 에이스하드웨어 멀티툴, 버킷 등의 상품과 유진홈센터 자체브랜드 ‘SEE’의 클린바스 미세모 칫솔 등을 시중가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유진그룹

인사

◆ **SK텔레콤** ◇신임 임원 △김석원 MNO CIC 프로덕트·브랜드본부 브랜드 담당 △김우람 커뮤니케이션센터 대외지원실장 △김태희 코퍼레이트센터(CFO) 주주가치혁신실장 △신상민 커뮤니케이션센터 정책개발실장 △안홍범 MNO CIC 네트워크센터 네트워크 AT/DT담당 △이정민

서비스팀 대표 △최종복 커뮤니케이션센터 미디어컴실장 △최훈원 CSPO 안전보건실장 △김영범 SK브로드밴드 코퍼레이트센터 PR실장 △박상훈 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센터 네트워크운용담당 △신범식 SK브로드밴드 AT/DT센터 AT/DT개발담당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숲지기’ 해단식

3개월간 활동… 외국인 10명 참여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3기 중소기업-숲(SSUP)지기(숲지기)’ 해단식을 열고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숲지기’는 어학, 자격증 등 중진공의 온·오프라인 연수 과정을 홍보하기 위해 결성한 서포터즈다. 올해는 외국인 10명도 숲지기로 참여했다.

3기 숲지기들은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연수 후기와 이벤트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홍보했다. 외국인 유학

생을 위한 취업 교육과 다국어로 된 플랫폼 이용 설명서 제작도 제안했다.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지사는 “올해 외국인 유학생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학습자에게 맞춤형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숲(SSUP)’은 중소기업 임직원뿐만 아니라 기술, 경영, 어학, 자격증, 자기계발 등 학습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개방형 학습 플랫폼이다. /김승호 기자 bada@

GS칼텍스, ‘소방의 날’ 경기도지사 표창

전기차 충전소에 화재진압설비 도입

GS칼텍스가 전기차(EV) 충전소에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진압설비를 도입한 공로로 제63주년 ‘소방의 날’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경기도지사 표창은 GS칼텍스가 국내 정유사 최초로 ‘에너지플러스 허

브’ 4개소(삼방, 내곡, 죽전, 달맞이)에 EV 전용 화재진압설비를 설치하며 지역 사회 안전 강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GS칼텍스는 올해 4월 에너지플러스 허브 달맞이점에 전기차 화재진압설비를 도입했으며, 이후 주요 거점 4개소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원관희 기자



귀뚜라미, KCPI 온열가전 부문 우수

13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3세대 카본매트로 난방매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귀뚜라미는 올해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발표한 ‘2025년 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KCPI)’ 세부 조사항목에서 고른 점수를 획득하며 5년 연속 온열가전 부문 조사 기업 중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부여받았다. /귀뚜라미



우리금융미래재단, 한파 방한용품 지원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에너지 취약계층 2400가구에 방한용품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석진형 우리금융미래재단 팀장(오른쪽)과 조준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

중학생 대입 성공, ‘선행’보다 ‘문해력’



지 상 범 의

입시 토크

◆문해력의 재정의 : 단순한 독해를 넘어선 대입 핵심 역량

친구와의 오해, 시험 문제의 낯선 표현. 이 모든 것은 문해력과 직결된다. 많은 학생이 문해력을 단순한 글 읽기 능력으로만 인식한다. 그러나 문해력이란 글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통합적 역량이다. 디지털 미디어 속 짧은 콘텐츠는 깊이 있는 글 이해 능력을 저하시키며, 이는 단순 학습 부진을 넘어 비판적 사고력 상실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다.

◆중학생 문해력 함양의 중요성 : 대입 성공과 미래 적응 필수 조건

중학교 시기는 초등 문해력을 심화하는 언어 발달의 황금기이다. 문해력은 학업 성취와 미래 핵심 역량 함양에 필수적이며, 이 시기를 놓치면 문해력 향상에 어려움이 커진다. 문해력은 고교 학업 내용 이해와 대입 준비의 필수 요소다. 학습량 증가와 수능의 복잡한 지문, 면접, 논술 모두 문해

력에 기반을 둔다. 국어뿐 아니라 수학 문제, 과학 보고서 해석 등 모든 교과 학습에 문해력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해력이 학습 및 성적에 미치는 영향

문해력은 모든 학습의 시작점인 ‘이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수업 이해, 교과서 해석, 문제 파악 등 모든 학업 과정에 필수적이다. 많은 학생이 문제 핵심을 파악 못해 오답을 내는 것은 전적으로 문해력 부족 탓이다. 문해력이 높은 학생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흡수하며, 개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이해한다. 이는 고차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어져 학업 성취로 나타난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짧은 영상 콘텐츠에 익숙해지면서 긴 글 읽기를 어려워한다. ‘얕은 독해(Skimming)’나 ‘선택적 독해’ 등 디지털 시대 독서 습관은 깊이 있는 이해를 방해하며, ‘실질적 문맹’으로 귀결된다. 이는 단순 학업 문제를 넘어, 비판적 시각 상실,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까지 이르는 파급 효과를 지닌다.

◆중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전략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실질적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다양한 독서에 도전해야 한다. 교과 연계 도서, 소설, 신문 칼럼 등 폭넓은 글을 읽어 배경지식과 어휘력을 확장

한다. 둘째, 능동적인 독해 습관을 들여야 한다. 글을 읽으며 ‘왜?’ 질문을 던지고, 중요 부분에 밑줄 긋거나 메모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한다. 셋째, 정리하고 표현하는 글쓰기 연습이 필수적이다. 읽은 내용을 요약하거나 필사하고, 독서록, 칼럼 등을 작성하여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표현해야 한다. 넷째, 토론과 소통을 통한 확장이 중요하다. 친구들과 특정 주제로 ‘찬반 토론’을 정기적으로 해보는 것은 논리적 전달 훈련이 되어 문해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어휘력 강화는 필수적이다. 모르는 단어는 반드시 찾아보고 자신만의 단어장을 만들어 꾸준히 학습해야 한다.

◆문해력, 미래를 밝힐 가장 강력한 역량

문해력은 학업 성적과 대입 성공을 넘어, 급변하는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현명하게 판단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문해력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능력이 아니지만, 꾸준한 독서와 사유의 노력은 대입 성공을 넘어, 자신만의 확고한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삶을 주도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결국 문해력은 대입 성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될 뿐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JBS전진전략연구소장

ESG의 ‘S’를 읽었다



기 지 수 첵

이 청 하
(유통&라이프부)

최근 국내 대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 생산(CDMO)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발생한 직원 개인정보 유출이 노사 간 갈등으로 이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 측에 의하면 지난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팀 공용 폴더가 전체 직원에게 공개되는 사고가 났다. 특히 해당 폴더에는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로 ‘마음건강 상담소장님 소견’이 수집되어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문을 연 바이오 마음챙김 상담소에는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며 전문 심리검사와 맞춤형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

부 상담소와 연계해 부부 상담, 자녀종합 심리검사 등도 지원한다고 한다. 생명 지킴이는 동료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살 예방 활동도 수행한다.

건강 정보 관리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바이오 기업이 내부 직원의 기록을 악용하려 했다는 의구심이 커지면서 비판 대상이 됐다. 이후 노사는 직접 만남을 가지며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는 듯 했으나,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민사소송이 들어왔다고 공개했다.

향후 양측의 법적 대응에 앞서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임직원 건강과 행복이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하던 회사의 대외적 선언과 대조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아울러 제약·바이오 기업이 ‘신뢰’와 ‘투명성’이라는 기본 가치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

례가 될 것이다.

해당 기업뿐 아니라 대내외적 소통의 불투명성은 근본적인 기업 문화를 흔들다. 이해관계자의 캐주얼한 질문에도 대외 비라는 명목으로 답변할 수 없다는 기업 입장은 때로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으로 작용한다. 또 현 시점, 현 위치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불가항변식의 답변이 반복되는 조직에서는 지속가능한 기업문화가 자랄 수 없다.

국가 기밀 수준의 민감한 정보를 ‘무기화’했다는 비판은 받지 않기를 바란다. 임직원 개인 정보를 포함해 각종 기술 자료, 임상시험 데이터, 환자 건강 정보 등 제약·바이오 산업이 다루는 내용들에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 높은 윤리적 책임과 관리가 요구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정보 정확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기업 문화는 해소되어야 한다.

/mlee236@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14일 (음 9월 25일)

<http://www.saju4000.com>

취



소



호랑이



토끼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토끼



소



호랑이



토끼



소



호랑이



토끼



소



호랑이



토끼



소



호랑이



토끼



소



호랑이



토끼



소



호랑이



토끼



소



호랑이



토끼



소



호랑이



토끼



소



호랑이



토끼



소



호랑이



토끼



소

김상회의四季

순리에 응하다



고령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처음으로 20대 인구가 70대 인구보다 적어졌다는 통계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늙는다는 것이 사회 부채처럼 느껴지는 시대, 생산인구는 적어지고 연금이나 축내며 사회적으로 비용을 증대시키는 유후 노동력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고령자들은 부담을 주는 존재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것이 비단 오늘의 일만은 아니어서, 카페에서도 고령자들이 들어오면 그리 달가운 손님이 아닌 듯하고, 불청객 보듯 하는 젊은이들도 적잖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그러나 지나간 세월은 무심해서 다시 돌아킬 수도 잡을 수도 없다. 나에게도 언제 그런 날이 있었던가 싶은 희미한 기억뿐이다. 고령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도 분명 이유는 있다.

장유유서가 절대적이던 조선 유교사회 때에도 “늙으면 추(醜)하다.”라고 서산대사가 말했다. 나이 먹어 외모만 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마저 빈곤하다면 이야말로 진정 추한 일이다. 젊은이들이 따르진 않더라도 피하지는 않는, 나이 든 자의 내면을 어떻게 하면 잘 뒤어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때다. 늙음도 장수수명이기에 겪는 과정이다. 오복 중 으뜸이 장수인데, 오래 살기를 바라면서 늙음이 주는 부산물을 싫어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현대는 의학과 의술이 좋아지고 영양이 좋아서 평균수명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사주로 장수 운명은 타고난다. 단명사주 역시 사주 명조에 있으니 우선 자기를 알고 자연의 순리에 순응한다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찬 이슬 내리고 서리가 완연해 지는 상강(霜降)을 지나며 인생도 가을을 지나 겨울로 가는 것 같은 상념이 들지만, 젊음이 변해 늙음이 오는 것은 절기처럼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것이니 안타까워만 할 일이 아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9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9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아마로네의 현대적 재해석... 알레그리니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303

먼저 포도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린다. 늦게 수확한 포도는 세심하게 말린다. 포도에서 수분이 절반 가량 빠져나가면서 당도, 산도, 복합미가 응축된다. 이탈리아 발폴리첼라에서 아마로네 와인을 만드는 전통적인 방식 아파시멘토다. 건포도로 만들었으니 알코올은 높고 진득한 와인을 상상하면 오산이다. 농밀한 과실의 풍미는 얻었지만 산도는 살아있고, 타닌은 부드럽다. 아마로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와이너리 알레그리니의 아마로네다.

이탈리아 발폴리첼라를 대표하는 와이너리 알레그리니의 아시아 지역 매니저 엘리아 아초리(Elia Aztori)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알레그리니는 아마로네 양조방식과 스타일 모두에서 혁신을 거듭해왔다”며 “2023년부터는 가문의 7세대가 알레그리니 경영을 맡아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이탈리아에서 어느 지역인지를 보자. 지도를 떠올려 장화 모양의 입구 부분인 북부 베네토다.



알레그리니의 아시아 지역 매니저 엘리아 아초리(Elia Aztori)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알레그리니의 와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마로네 와인은 잘만 만들면 이탈리아 3대 와인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인정을 받지만 문제는 포도를 말리는 아파시멘토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데 있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발폴리첼라의 겨울은 비가 많이 오고 습해 포도에 곰팡이가 생기는 일이 잦았다. 포도 손실률이 40%에 달하다 보니 가격은 올라가고 품질 역시 떨어졌다. 이때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 곳이 알레그리니다. 공기 순환이 잘 되는 최첨단 건조 시설을 만들었더니 포도 손실률은 1%대로 뚝 떨어졌다. 품질은 높아지고, 생산량도 늘



왼쪽부터 알레그리니 소아베 2024, 알레그리니 발폴리첼라 클라시코 2024, 알레그리니 팔라쥬 델라 토레 2022, 알레그리니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클라시코 2020. /안상미 기자

었다. 발폴리지역 전체가 아파시멘토에 대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순간이다.

알레그리니의 새로운 세대가 꾀한 혁신은 클라시코와 토착품종에 대한 집중이다. 지역 전체에서 생산된 포도로 만든 와인은 발폴리첼라 DOC, 석회암 점토와 화산토로 구성된 구릉지대는 발폴리첼라 클라시코 DOC로 따로 구분된다. 기존 발폴리첼라 와인은 더 이상 알레그리니의 레이블을 달고 나오지 않는다.

기다렸던 만큼 아마로네 먼저 맛본다. 역시 강렬함보다는 우아함과 균형

감이 먼저다.

‘알레그리니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클라시코 2020’은 코르비나를 주 품종에 롬디넬라, 오셀레타 등을 섞었다. 말린 자두와 검은 체리같은 과실에 다크초콜릿과 향신료 뉘앙스가 복합적이다. 입 안 전체를 가득 채우지만 타닌은 부드럽고, 산도도 명확하다. 잡티없는 깔끔함이 고급스럽다.

‘알레그리니 발폴리첼라 클라시코’가 발폴리첼라라는 지역을 잘 보여주는 와인이라면 ‘알레그리니 팔라쥬 델라 토레’는 알레그리니의 가치를 입증하는

와인이다.

어떻게 하면 와인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던 알레그리니는 기존 고정관념을 모두 깨버렸다. 포도의 70%는 일반 레드 와인 방식으로, 30%는 아마로네와 같은 아파시멘토 방식으로 건조해 각각 숙성한 뒤 블렌딩했다. 쉽게 말하면 발폴리첼라에 아마로네를 더한 것. 잘 익은 과실미가 살아있으면서도 향신료향 등 풍미는 복합적이고, 산도가 살아있다. 지금은 알레그리니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대표 와인이다.

‘알레그리니 소아베 2024’는 토착 화이트 품종인 가르가네가로만 만들었다. 알레그리니는 원래 레드 와인만 생산했는데 15년 전쯤부터 화이트 와인 산지로 유명한 소아베와 루가나 등에 투자해 화이트 와인을 본격 만들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화이트 와인도 인기가 높아질 것이란 예측이 딱 맞아 떨어졌다. 이전에는 샤르도네도 일부 섞었지만 새로운 세대는 토착 품종에 좀 더 집중하기로 했다.

화사한 흰꽃 향기와 함께 아로마로도 화산성 토양에서 비롯된 미네랄이 충분히 느껴진다. 신선하고 짭한 산미와 함께 뒷맛이 깔끔하다. 와인만 마시기도, 해산물이나 샐러드, 치즈 등과 같이 내놔도 좋을 와인이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주말은 책과 함께

2025 서울디자인페스티벌 개막... 16일까지 코엑스 개최

국내 최대 디자인 문화 콘텐츠 전시 ‘2025 서울 디자인페스티벌’이 오는 16일까지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열리고 있다.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은 2002년 첫 개최 이후 23회에 걸쳐 총 141만여 명의 관람객, 3200여 브랜드, 5600여 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해 국내 최대 디자인 문화 콘텐츠 전시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973명의 디자이너, 330개의 브랜드가 함께해 ‘길찾기(Wayfinding)’를 주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 글로벌 디자인 산업의 흐름을 바라보는 관객의 시선을 담았다.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사무국 측은 이번 행사가 디자이너와 관람객 모두 현장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산업 간 교류와 영감을 교류하는 장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열리고 있는 국내 최대 디자인 문화 콘텐츠 전시 ‘2025 서울디자인페스티벌’에서 관람객들이 ‘모듈형 전기자동차’ 부스를 체험하고 있다. /디자인하우스

비스테이지, ‘케이팝 데몬 헌터스’ 굿즈 세계 최초 공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서울 공식 팝업에서 판매하는 공식 굿즈 라인업을 13일 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 공식 팝업과 굿즈는 팬덤 플랫폼 ‘비스테이지’가 넷플릭스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되어 넷플릭스와 함께 기획부터 제작한 것으로, 비스테이지는 향후 공식 굿즈의 글로벌 유통까지 확대하는 전과정을 총괄한다.

팝업 현장에서는 작품 속 캐릭터 ‘헌트릭스’와 ‘사자 보이즈’의 세계관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이 공개된다. 대표 아이템으로는 ▲더피&서씨인형 및 키링 ▲리류 및 잡화 ▲K-팝 스타일 굿즈(랜덤 포토크드, 포토크드 홀더, 콜렉트북 등) ▲곡 테마 아트웍 CD키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제품은 서울 팝업 단독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망해도 괜찮으니 시작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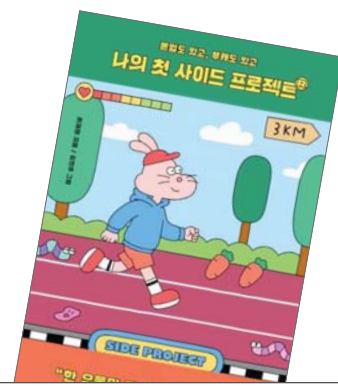
요즘 주변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기자들이 많이 보인다. 작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브런치에 틈틈이 쓴 글들을 묶어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책을 출간하거나,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퇴근 후 야간대학에 다니며 석·박사 학위를 추가로 취득하거나, 용돈 벌이 겸 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취미로 만든 물건을 판다거나 하는 식으로 본업 외 다른 일들을 하는 이들이 늘었다.

‘회사 하나 다니는 것도 벅찬데 다들 참 열심히 산다’라는 생각이 든 것도 잠시, ‘나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겨 ‘나의 첫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책을 집어들었다.

‘사이드 프로젝트’ 에디션자인 저자는 살면서 한 번은 해보고 싶었지만 나오는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나이가 많다는 혹은 적다는 이유로, 이상한 사람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돈이 안 된다는 핑계로 마음 한켠에 접어 두었던 작은 꿈들을 부업을 통해 펼치고 살라고 독자들에게 강권한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왜 퇴사 후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게 아닌,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가다. 이 물음에 책은 “망해도 괜찮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저자는 “사이드 프로젝트의 가장 큰 묘미는 실패하더라도 나에게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이라며 “하다 보니 이걸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다른 것으로 옮겨 타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사이드 프로젝트는 망쳐도 된다’는 마법 같은



나의 첫 사이드 프로젝트

최재원 지음/김현주 그림/휴머니스트

주문에 숨겨진 효과는 ‘잘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책에는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많아 여기저기 손대는 게 많은 데도 전부 소꿉놀이 수준에 그치는 ‘취미 부자’들을 위한 조언도 나온다. 그중 ‘독하게 기록하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세상에는 언제나 나 대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누군가 저질러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업을 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해 두면 그들이 당신을 발견하고 기꺼이 팬을 자처하며, 사이드 프로젝트의 확성기가 돼 준다고 책은 이야기한다. 또 저자는 꾸준한 기록은 아무도 모르는 가능성이라는 선물을 가져다준다고 강조한다.

216쪽, 1만4000원.

/김현정 기자 hjk10

메트로 한줄뉴스



▲아일랜드전 앞둔 호날두 야유 집중에 “착한 아이된다”는 약속 내놔 /사진 뉴시스

▲“축구 성지” 웹블리서 유로 2028 결승전 열린다... 개막전은 카디프

▲국립진주박물관 2025년 관람객 51만명 돌파... “개관 이래 최다 기록”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시 8개 종목 서울서 치른다... 경기장 사용 협의

▲세계유산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되나... 세운 4구역 건물 최고 높이 논란

▲법원, 여순사건 포고령 위반 11명에 무죄 판결... 사망자 억울함 벗어



K-뷰티
현지 소비자와 소통
해외 오프라인 전략
L1

metro®

Life

무신사
10조 패션기업
IPO 판 키운다
L2



아트·물·빛 감성 테마... 품격 더한 ‘오색 안마당’

아파트의 미학(美學)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광명 뉴타운 중심부, 주변 인프라 풍부
지역명 맞춰 ‘빛의 도시’ 모티브로 꾸며
특수형 소나무 등 리조트 분위기 더해

시그니처 단풍나무 배치한 ‘아트포레’
잔디정원에 워터오브제 더한 ‘그린’ 등
5개 주요 코트야드로 테마별 조경 구성

이달 초부터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광명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에서 걸어서 7~8분이면 단지가 나타난다. 대단지다운 대형 문주 앞에는 입주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고, 이사 차량이 동마다 대기 중이었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광명 뉴타운에서도 광명2동88-14일원 4구역 재개발로 들어선 단지다. 지상 최고 36층, 총 11개 동, 총 1957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별로는 ▲39㎡ 106세대 ▲49㎡ 185세대 ▲59㎡ 32세대 ▲75㎡ 34세대 ▲84㎡ 61세대 ▲113㎡ 7세대 등 총 425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됐다.

2만5000가구 규모로 미니 신도시급인 광명 뉴타운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 이제 마무리 단계다. 일대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이라도 오랜만에 방문했다면 길을 찾기 힘들 만큼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했다. 모두 16구역 가운데 4구역인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뉴타운 내에서도 중심부다. 뒷편으로 2구역인 ‘트리우스 광명’이 작년엔 입주했고, 나란히 붙은 5구역 ‘광명자이힐스SKVIEW’가 한창 공사 중이다.

원도심인 만큼 교통, 교육, 상업 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다. 단지 앞으로 광명전통시장과 대형할인점 등이 위치했고, 주위로 생태하천인 목감천과 안양천을 따라서 수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순환하는 산책로와 커뮤니티, 정원의 연계를 통해 동선을 최적화했다. 중앙 오픈스페이스에는 테마 정원을 조성해 리조트 형으로 꾸몄고, ‘광명(光明)’이라는 지역명에 맞게 ‘빛의 도시’를 모티브로 조명시설을 설치해 단지 전체의 야경을 완성했다.

단지 곳곳에는 특수형 소나무를 비롯해 모양이 잘 잡힌 교목들이 이미 자리를 잡았고, 땅을 덮는 지피식물과 낮은 관목들의 밀도를 높여 리조트 정원을 거니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조경은 5개의 주요 코트야드(Courtyard)로 이뤄졌다. ▲아트포레 코트야드 ▲그린 코트야드 ▲커뮤니티 코트야드 ▲워터 코트야드 ▲키즈 코트야드 등이다.

아트포레 코트야드에는 폭포처럼 층층이 떨어지는 케스케이드형 수반 위에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진 단풍나무를 배치해 단지의 시그니처 경관을 연출했고, 조형미가 돋보이는 오브제를 배치했다.

그린 코트야드에는 아늑한 잔디들과 워터오브



제를 더했으며, 커뮤니티 코트야드에는 다목적 잔디마당과 티하우스를 배치했다.

워터 코트야드에는 표면이 거울처럼 반사되도록 얇게 이루어진 연못인 미러폰드와 글라스하우스를 적용해 고급스러운 공간을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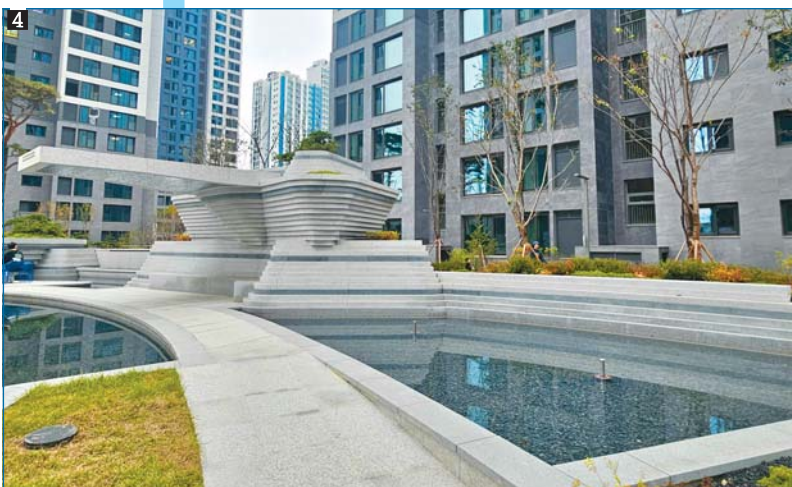
단지 내에는 김병진 작가의 ‘경계없는 세계-순환’과 박영철 작가의 ‘Curvees of Life(삶의 곡선들)’ 등 모두가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 놓여졌다.

키즈 코트야드에는 숲과 나무 사이에 스며든 빛을 테마로 한 여러 조형 놀이터다. 상상력과 감수성,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다양한 테마와 난이도의 놀이시설을 배치했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어린 이들의 흥미를 끌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단지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곳곳에 있고, 조깅 트랙도 마련되어 있다. 어린이집은 단지 내에 들어섰으며, 단지 앞 광명초등학교를 사이에 두고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그린 통학로’ 이용이 가능하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1 지피식물, 낮은 관목을 배치해 리조트처럼 꾸민 단지 내 정원. 2 티하우스와 조형물을 배치한 ‘커뮤니티 코트야드’.
3 단지 내 전경. 4 고급스러운 공간을 연출한 ‘워터 코트야드’.

/안상미 기자





SK telecom

**ONER**
오너**FAKER**
페이커**GUMAYUSI**
구마유시**DORAN**
도란**FAN**
팬**KERIA**
케리아

LoL(롤) 월드 챔피언십 전무후무 3연속 우승
유일무이 통산 6회 우승

여섯 번째 별은 팬 여러분입니다

선수 개개인의 탁월한 능력과 팀워크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T1은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또 한 번 세계의 정상에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열정의 여정을 함께해 주신
팬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믿음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T1 왕조의 전설이 끝없이 이어지기를
SK텔레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결승 하이라이트 보기



Powered by